

전략연구 2016-42

#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김기홍



# 발 간 사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가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심각한 위기임과 동시에 현재 농촌 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번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시행한 것에 이어 농업의 후계 인력 부족 문제, 그 가운데서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본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목 받고 있지 못하지만 농업 부문에서 청년층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충남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정리하고, 청년농업인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 추진 방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농업인은 ‘농업인력’의 시각으로 주로 판단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을 단순 인력이 아닌, 지역의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 구성요소로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자구책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서의 논의는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가 작은 성과를 내어, 농업 후계 인력 문제, 나아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본 연구의 책임자인 김기홍 박사를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정남수 교수, 김정섭 박사, 정경환 충남귀농귀촌학교 대표, 서동철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귀농지원팀장, 김양섭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학습조직팀장, 원내 송두범 박사와 성태규 박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수행은 충남도를 비롯하여 금산군,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의 귀농귀촌 담당자분들과 청년농업인 및 여러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밝힙니다. 그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 연구 요약

## 제1장 서론

농촌 인구의 감소와 함께 청년층 농가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충남의 후계 인력 부족 심화는 농촌농업 분야의 활력 저하로 이어져 농촌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충남 청년농업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 내 청년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농업인의 실태는 조사된 바 없다. 이러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충남의 부족한 농업 인력 보강은 물론 지역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지금까지 청년농업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농업인력’이라는 개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인력개발을 통한 육성책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을 단순 인력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 구성요소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농업인력에 대해 단순히 영농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나 체험적 단계에서의 접근을 넘어 지속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의 확보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며, 이것이 지역공동체 기반을 유지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제3장 충남 청년농업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

청년의 범위는 다양하며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정하기로 한다. 충남도의 청년정책은 ‘충남경제비전 2030’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여 전체 고용률 75%, 만 15~29세 청년 고용률은 50%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15년 간 일자리 30만 개가 필요함에 따라 해마다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기로

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실이 주가 되어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시행 중이다. 충남은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 농업환경 변화와 청년일자리를 문제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지원을 통해 농업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충남의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장단기 지원 과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3개, 2017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3개이며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거나 보완되었다.

## 제4장 충남의 청년농업인 실태

2015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6)에 따르면, 충남의 만 39세 이하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충남의 만 39세 이하 농가 수는 2015년 1,54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59.6%가량 감소, 2005년 대비 약 68.8% 감소하였다. 충남의 농가 수 대비 39세 이하 농가 수 비중은 2005년 3.2%, 2010년 2.6%, 2015년 1.2%로 감소 추세에 있다. 충남의 만 39세 이하 농가 인구는 57,041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약 41.0% 감소, 2005년 대비 약 53.4% 감소하였고 평균 증감률은 -31.0%로 매우 높은 수치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충남의 만 34세 이하 농업인은 97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 가운데 논산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여군 94명, 보령시 78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 34세 이하의 4-H 회원은 674명, 만 34세 이하의 농업인 가운데 4-H로 등록되지 않은 청년농업인을 시군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297명이었다. 4-H에는 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의 구분은 없으나 대부분이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6년 현재 충남 4-H 회원의 종사 형태는 충남의 일반 농가에 비해 논벼보다 타 작물에 대한 재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의 비중(30.1%)이 가장 높으며, 이 밖에도 채소(20.8%), 특용(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작물은 시설비 등 경영비와 영농 기술에 대해 높은 수준을 필요로 하지만 반면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는 점 때문에 젊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의 만 39세 이하 귀농인(31명)을 대상으로 한 농업 실태는 ‘창업’이 58%(18명)를 차지했고 ‘창업준비’가 42%(13명)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가운데 귀농인의 경우에는 이미 창업한 자에 대한 지원과 창업준비를 위한 지원이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가 45%(14명)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만 30세 이상 34세 이하가 32%(10명)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나이대의 귀농인이 창업을 목표로 한 준비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재배작목(복수 선택 가능)으로는 채소가 절반에 가까운 48%(21건)로 가장 많았고, 논벼가 16%(7건), 인삼을 포함한 특용이 14%(6건), 과수가 11%(5건)의 순으로 나타나 채소재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지원 정책은 유형별로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청년농업인은 농업이 가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주위에서 바라보는 농업에 대한 편견과 텃세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토지, 주거, 일자리라는 물리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형별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인에는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접근하지 못한 예비 귀농인, 귀촌인 등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청년농업인은 농업의 전승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지역 내에서의 다양한 역할 구분을 인식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농업인으로서의 여건 마련에 힘써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 마련을 위해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으며, 정신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도움이 되는 ‘멘토’ 중심의 학습회의 개최는 청년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농업 인프라의 측면,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와 인맥 관계 등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의 문제, 단계적 농업 정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민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의 축적된 노하우도 필요하다. 기존의 농업기술원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가면서 청년농업인의 자주적인 역량 강화를 스스로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 목 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필요성 .....	2
2. 연구 목적 .....	3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	4
1. 청년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	4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5
제3장 충남 청년농업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 .....	6
1. 개요 .....	6
2. 청년의 범위 및 지원 현황 .....	7
1) 청년의 범위 .....	7
2) 청년 관련 정책 현황 .....	7
3. 청년농업인의 범위 및 지원 현황 .....	14
1) 청년농업인 정의를 위한 개념 정리 .....	14
2) 청년농업인의 범위 .....	20

3)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정책 현황 .....	21
4)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	23
4. 시사점 .....	34

## 제4장 충남의 청년농업인 실태 ..... 35

1. 개요 .....	35
2. 충남의 농가 실태 .....	36
1) 충남의 농가 수 및 농가 인구의 추이 .....	36
2)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 추이 .....	41
3. 충남의 만 34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 실태 .....	46
1) 충남의 만 34세 이하 농업인 수 .....	46
2) 충남 시군별 농업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 비교 .....	50
4. 충남의 만 39세 이하 귀농인 농업 실태 .....	62
1) 지역 및 유형별 결과 .....	62
2) 연령별 결과 .....	63
3) 종사형태별 결과 .....	64
5. 시사점 .....	65

## 제5장 청년농업인 정책 개선을 위한 사례 조사 ..... 66

1. 개요 .....	66
2. 청년농업인 사례 .....	67
1) 후계농업인 A씨(33세) .....	67

2) 후계농업인 B씨(34세) .....	69
3) 귀농인 C씨(39세) .....	72
4) 귀농인 D씨(34세) .....	76
5) 귀농인이 아닌 자 E씨(34세) .....	81
6) 귀농인이 아닌 자 F씨(34세) .....	83
 3. 청년농업인 지원 단체 사례 .....	86
1) 전국 단위 사례: 전국귀농운동본부 .....	86
2) 지역 단위 사례 1: 풀무학교 전공부(교사 G씨, 홍성군 홍동면) .....	87
3) 지역 단위 사례 2: 젊은협업농장(이사 H씨, 홍성군 장곡면) .....	92
 4. 시사점 .....	96
 <b>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97</b>
1. 결론 .....	97
2. 정책제언 .....	99
1) 청년농업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99
2)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필요 정책 .....	102
3)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정책 방향 .....	104
 <b>참고문헌 .....</b>	<b>107</b>

## 표 목 차

<표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제개정 과정 .....	8
<표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주요 내용 .....	8
<표 3>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단계별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	10
<표 4>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의 성격과 주요 내용 .....	11
<표 5> 충남의 고용정책 사업 목적 및 대상 .....	12
<표 6> 충남의 고용정책 사업 내용 .....	13
<표 7>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사업 경과 .....	16
<표 8> 후계농업경영인 작목별 분포 .....	17
<표 9> 청년농업인의 구분 .....	21
<표 10>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지원 정책 현황 .....	22
<표 11> 도시청년 농촌 유지를 위한 사업계획 소요 예산 .....	23
<표 12>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단기 지원 과제 대상 및 추진 체계 .....	25
<표 13>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단기 지원 과제 사업내용 .....	26
<표 14>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일정 .....	27
<표 15>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내용 .....	27
<표 16> 시군별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	29
<표 17>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대상 및 사업비 내역 .....	33
<표 18>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내용 .....	33
<표 19> 충남 농가 수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 추이 .....	37
<표 20> 충남 농가 인구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추이 .....	38
<표 21> 충청남도 만 39세 이하 농가 수 추이 .....	41
<표 22> 충청남도 만 39세 이하 농가 인구 추이 .....	42
<표 23> 충남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가 수 및 전체 농가 대비 비율 .....	44
<표 24> 2016년 충청남도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업인 수 .....	47
<표 25> 2016년 충남 시군별 4-H 영농회원 및 일반회원 현황 .....	49
<표 26> 충청남도 농업 종사가구원의 종사형태(2010년 기준) .....	51

<표 27> 충청남도 4-H회원의 종사형태 .....	52
<표 28>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논벼, 식량) ....	54
<표 29>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채소, 특용) ....	56
<표 30>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과수, 화훼) ....	58
<표 31>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축산, 기타) ....	60
<표 32>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정책 제안 .....	103

## 그림 목 차

[그림 1]	4-H 육성체계 .....	19
[그림 2]	2005년 충남 시군별 농가 분포도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비율 .....	39
[그림 3]	2010년 충남 시군별 농가 분포도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비율 .....	39
[그림 4]	2015년 충남 시군별 농가 분포도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비율 .....	40
[그림 5]	2015년 충남 농가 수의 2005년 대비 증감률 .....	40
[그림 6]	2005년도 충남 시군별 만 39세 이하 농가 분포도 .....	43
[그림 7]	2010년도 충남 시군별 만 39세 이하 농가 분포도 .....	43
[그림 8]	2005년도 충남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가 분포도 및 전체농가 대비 비율 .....	45
[그림 9]	2010년도 충남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가 분포도 및 전체농가 대비 비율 .....	45
[그림 10]	2016년 현재 충남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업인 분포도 .....	47
[그림 11]	2016년 충남 시군별, 성별 4-H회원 분포도 .....	48
[그림 12]	2016년 충남 시군별 4-H 영농회원 및 일반회원 분포도 .....	50
[그림 13]	2016년 4-H회원의 시군별 종사형태별 재배 비율 .....	53
[그림 14]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논벼) .....	55
[그림 15]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식량) .....	55
[그림 16]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채소) .....	57
[그림 17]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특용) .....	57
[그림 18]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과수) .....	59
[그림 19]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화훼) .....	59
[그림 20]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축산) .....	61
[그림 21]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기타) .....	61
[그림 22]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충남 대상자 수 .....	62
[그림 23]	충남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유형 .....	63
[그림 24]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연령별 분포 .....	63
[그림 25]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재배작목별 분포 .....	64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연구 배경

농촌 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들은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농업 농촌의 위기는 농업의 영농 자체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촌의 지역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 농가 수는 132,011세대로 2005년 대비 약 16%가량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 역시 그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어 2015년 기준 농가인구는 308,467명으로 2005년 대비 약 28%가량 줄었다.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39세 이하 농가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2015년도 충청남도의 39세 이하 농가 인구는 57,041명으로 이는 2010년도 보다 약 41.0% 감소한 것이며 2005년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약 53.4%가 줄었다. 이러한 충남의 후계인력 부족 심화는 농촌 농업 분야의 활력 저하로 이어져 농촌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은 2004년 8.3%에서 2014년에는 9.0%로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실업률 2004년 3.7%에서 2014년 3.5%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충남의 청년 실업률은 6.5%에서 8.3%로 1.8% 증가하여 10년 사이에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청년 인식조사(2015)에 따르면 이러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4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농업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농업농촌



의 영역에서도 일자리 차원의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최근 40대 이하 젊은 층 귀농귀촌 증가율(43.0%)이 전체 귀농귀촌 평균 증가율(37.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2014년),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 후계농업인도 지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청년농업인이 농업농촌 영역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2) 연구 필요성

지역 내에서 청년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농업인의 실태는 조사된 바 없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범위와 그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청년농업인에게는 어떠한 지원책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청년농업인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는 ‘농업’을 목표로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 후계농업인과 새롭게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 귀농귀촌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이어줄 네트워크는 물론 정책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마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청년 후계농업인과 청년 귀농귀촌인 모두를 아우르는 시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젊은 청년농업인이야말로 앞으로의 지역 농업 및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며, 이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농업과 농촌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남형 청년정책 구상(2015)에서 ‘청년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및 장기적인 정책파트너 그룹의 육성’이 가장 중점적 사항으로 지적된 것에 반해, 청년농업인에 관한 정책을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은 없었다.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도 지역의 청년들 간 연대의 노력은 농업 및 농촌을 지켜낸다는 공감대의 형성 및 확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청년농업인의 지원 현황 및 청년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층 사례 연구를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정리하여 정책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관련 지원 현황을 국가와 정부기관, 충남의 순으로 알아본다. 다음으로 충남의 청년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와 농업기술원의 협조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농업 실태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충남 청년농업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을 유형별로 나누어 그에 대한 사례를 심층 조사하고자 한다. 각 대상이 처해있는 농업의 여건과 농촌 정착과정 등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의 단체 지원 사례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 본다.

이 과정을 통해 충남의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청년농업인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며, 나아가 충남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충남의 농촌지역에서 고령화 되어 가는 후계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내에서 농업,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다양한 형태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바탕으로 하는 농촌공동체의 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 1. 청년농업인 관련 선행 연구

지금까지 청년농업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농업인력’이라는 개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인력개발을 통한 육성책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오해섭·김정주(2002)는 농업 및 농촌의 인력개발사업이 미래세대 육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80년대 이후 인력정책의 흐름을 정리하는 한편,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요구와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도 체계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임형백(2008)은 현직교육훈련 중심의 농업인력육성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지식기반 농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농업 체질강화와 경쟁력 제고의 전제는 우수한 경영주체 육성에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은영(2014)은 정예농업인력육성종합대책(2004-2013) 예산의 65%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투입되어 있어 잠재적 농업인력에 대한 투자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농업을 접한 청소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강호·마상진(2009)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 가지는 농업생산성 기여도를 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6년 후부터 농업생산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익수·김병률(2011)은 농업인력 고용의 문제점 파악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영농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조달시스템 구축과 농업 분야에 대한 노동 경험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런 의미에서 농업인턴제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진종순(2010)은 품목별 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의 경우 사회,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삶의 변화에서도 농업경영에 대한 자신감 증대와 협력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최영창·박은식·고정숙·조영숙(2007)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필요성 및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조직 활동 강화의 필요성과 지역의 역할에 대해 주장하였다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우선 청년농업인을 단순 인력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 구성요소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농업인력에 대해 단순히 영농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나 체험적 단계에서의 교육적 접근을 넘어 지속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의 확보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하며, 이것이 지역공동체 기반을 유지하는 요소로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농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를 가진 같은 청년으로서 청년 후계농업인과 청년 귀농인, 그리고 아직은 귀농인이 아닌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 강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청년 후계농업인 및 청년 귀농인, 귀촌인 각각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방향 및 지원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각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청년농업인의 범위 및 실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 제3장 충남 청년농업인의 지원 현황 및 실태

### 1. 개요

이 장에서는 충남 청년농업인의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우선 청년의 범위는 무엇이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청년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마련 과정을 알아보고, 중앙정부 및 충남의 청년정책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청년농업인의 범위와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용어를 먼저 정리하여 법적 차원에서의 ‘농업인’ 보다는 큰 개념으로 바라 보고자 하였다. 청년농업인은 부모 세대가 농촌에 기반을 둔 자 혹은 새로 농촌지역에 오게 된 자, 그리고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에 따라 후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 귀농인과 귀농 인이 아닌 자로 먼저 구분하고 그 가운데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4절에서는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가 단기 과제 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실시하려는 지원 사업을 대상과 규모, 내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절에서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 2. 청년의 범위 및 지원 현황

### 1) 청년의 범위

우선 본 과제에서 말하는 연구 대상을 명료화하기 위해 청년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2030세대

현재 충남에서는 기존의 지원 사업별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사업별 대상 연령을 인정하고자 하여 잠정적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정하기로 한다.

### 2) 청년 관련 정책 현황

#### (1) 청년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마련 과정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에 관해 법제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에 따른 청년실업문제 차원에서 청년실업해소특별법(2004년 시행)이 제정되었고 대통령 소속 하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조직을 설치하였다(표1, 2).

2008년에는 두 번의 개정을 통해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촉진의 방향으로 청년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을 5년간 연장하기에 이른다.

2009년에는 ‘청년실업’에서 ‘청년고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청년고용문제에 대처하기 시작하였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이를 위해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공공분야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와 기업, 대학이 협력하여 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 시기는 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차원에서의 취업 기회의 확보를 위한 법적 마련으로 보이나 청년고용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표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제개정 과정

법명	시행	제정 및 개정 이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제7185호	2003.3.5 제정 2004.6.6 시행	경기침체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제8858호	2008.2.29 일부개정 및 시행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폐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제9317호	2008.12.31 일부개정 및 시행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침체가 본격화에 따른 우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률제9797호	2009.10.9 일부개정 및 시행	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본격적인 사업 실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률제11792호	2013.5.22 일부개정 2014.1.1 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의무사항으로 변경

자료: 법제처

<표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주요 내용

법명	주요 내용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제7185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의 협조 2.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함 3.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4. 고용 및 작업능력개발훈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5. 대통령 소속 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전담 행정조직설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제8858호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 강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법률제9317호	공공기관의 미취업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률제9797호	1. 노동시장 유인을 위해 법의 제명 변경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3.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4.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해외 봉사 제공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률제11792호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2.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자료: 법제처

## (2) 국가 및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 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인재양성, 청년과 소통 및 청년정책 기획, 조정, 평가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7월 16일 출범하였다. 청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기획총괄부, 일자리부, 인재양성부, 소통부의 4개부로 실무추진단이 꾸려졌다. 단계별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3). 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있으며 정책방향은 크게 3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발전정책추진’, ‘소통과 인재양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5가지로 ‘창업 및 창조경제 확산’,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확충’, ‘청년의 권익호보 및 삶의 질 개선’,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로 나누어져 있다.

이같이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도 이러한 큰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가운데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해서는 창업 스토리 사례 이슈화와 (창업)동아리 결성 지원, 청년 일자리 간담회, 청년 제안 사업 발굴, 청년 주거 개선 방안 도출, 청년 정책 포럼, 지자체별 우수 청년 정책 사례 공유 등은 충남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과정에서도 응용해볼 수 있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표 3>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단계별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단계	주요 내용	
목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정책방향	일자리 창출	-산업 내에 숨어있는 청년 일자리 발굴 -창업 붐을 통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교육, 노동, 시장 활용한 맞춤형 인재육성 -해외진출
	청년발전정책추진	-눈높이 청년정책 -현장, 국민, 협업의 조율
	소통과 인재양성	-온라인/오프라인 소통 강화 -청년멘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캠프, 사회봉사, 아이디어 공유 공간 마련
중점 추진과제	창업 및 창조경제 확산	-기업가정신 고양을 위한 창업 포럼, 창업 스토리 사례 이슈화 -창업 인프라 활용한 체험 기회 확대: 창업경진대회, 창업스쿨 멘토제 운영 -벤처 투자 등을 유치한 유망 스타트업이 인재를 캠퍼스에 직접 찾아가 인재 채용, 클라우드 펀딩 및 벤처 캐피탈 자금 제공, 청년 창업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별로 청년위원을 지정하여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토크쇼 및 강연회 개최, ‘대한민국 청년서비스리더 연합’(15.12 출범)’으로 창업 동아리 결성 지원 -예술, 문화, 관광, 의료 등 지역 콘텐츠 활용한 맞춤형 체험 및 교육 -틈새시장 활용한 신규 직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환경 확충	-취업/진로정보가 취약한 지방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청년버스’, 청년채용박람회 연계 운영, 병영 멘토링, 대학별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청년 일자리 간담회, 청년 제안 사업 발굴, 청년 버스-멘토링 연계 등 협업 사업, 청년해외진출 지원, 일자리 모니터링단 구성, 고용부 및 중기청 등 채용박람회 활용, 정책홍보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등을 통한 채용기회 확대
	청년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개선	-알바, 인턴, 실습생 등 기관별로 추진 중인 청년 근로권익 개선사업 연계 캠페인 등 -선진국의 청년 복지 대응방안 제시, 청년 주거 개선 방안 도출 -청년 니트(NEET) 실태분석 및 장단기 해결방안 모색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청년 토크 콘서트, 정책 홍보 -청년 정책 포럼, 자자체별로 우수 청년 정책 사례 공유, 소통 창구의 정례화 -2030정책참여단, 청년정책동향 보고서로 정보제공, 청년 포털 활용, 블로그 기자단 활용

자료: 청년위원회 홈페이지

주: 가로 줄은 충남에서도 참고할 만한 방안으로 판단되는 것들

## ②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5년 청년고용정책’에서 취업지원(10개)과 일자리창출지원(4개), 직업 능력개발지원(10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과 ‘창업’ 측면에 초점을 둔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을 실시 중이다. 해외진출을 통한 창업 및 취업과 중소기업, 공공 부문에의 취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4).

<표 4>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의 성격과 주요 내용

성격	주요 추진 계획	주요 내용
해외진출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 「해외통합정보망」 구축·운영 - 「해외취업성공장려금제도」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 근속 유인 강화	- 고졸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직 활성화	- 「우리지역 키우는 창직사업」 신설 및 창직인턴제 확대
공공부문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 고용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지자체 활용	맞춤형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추진	

자료: 고용노동부(2015)

## ③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청년고용정책’ 사업으로 농업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과 농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총 5개 선정. 충남에서는 천안연암대학 선정)을 선정한 것에 그치고 있다<sup>1)</sup>. 기존의 귀농지원사업의 틀 가운데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려 하고 있으며 아직 ‘청년농업인’을 타겟으로 한 전략적 지원책이 마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2016년 4월 전국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6월 현재까지 지원금이 보류 상태이다.

### (3) 충남의 청년정책

충남도는 ‘충남경제비전 2030’ 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여 전체 고용률 75%, 만 15~29세 청년 고용률 50%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15년간 일자리 30만개가 필요함에 따라 해마다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기로 하고 있다(2016.3.10 보도자료). 현재 경제산업실이 주가 되어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표5, 6). 청년농업인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수산업 전문가 양성 과정 정도로 생각되며, 청년 CEO 500 프로젝트에도 참여가 가능할지 미지수이다.

<표 5> 충남의 고용정책 사업 목적 및 대상

사업명	목적	대상	담당부서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교육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자	경제정책과 (한국기술교육대학 위탁)
청년 CEO 500 프로젝트	창업	18세 이상 39세 미만 예비 창업희망자 및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경제정책과 (충남경제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위탁)
글로벌 해외인턴십	교육	대학생	충남도립대학교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수산업경영인, 어촌계장	충남수산관리소 (수산관련대학 위탁)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매칭	우수 중소기업와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경제정책과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위탁)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기업지원	중소기업 중 ‘14년 대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경제정책과

자료: 고용노동부(2015)

주: 기간별로는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은 5개월 내외이며, 글로벌 해외인턴십은 연수 12주+ 인턴십 12주이며,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105시간, 주1회 교육(3개월 이내)로 하고 있다.

<표 6> 충남의 고용정책 사업 내용

사업명	내용
일취월장 123 청년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전자, ICT(정보기술),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li> <li>-직업훈련 참여자 연수 수당 지원(5개월): 월 40만원</li> <li>-중소기업 인턴 지원(2개월): 월 60만원</li> <li>-정규직 전환 지원(2개월): 월 80만원</li> </ul>
청년 CEO 500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공간 지원</li> <li>-맞춤형 창업 지원</li> <li>-창업활동비 지원(월 25~60만원, 최대 10개월)</li> <li>-청년창업 경영자금 보증 추천 등</li> </ul>
글로벌 해외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인턴십 교과목 6개 개설학과에서 선발</li> <li>-연수 및 인턴십 기회 제공</li> </ul>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산업 관련 지역 리더 양성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고 학생의 중소기업 탐방</li> <li>-채용행사 개최</li> </ul>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기업 인증서 수여</li> <li>-관내 물품구입 우선 구매</li> <li>-수출보증보험 우대</li> </ul>

자료: 고용노동부(2015)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충남 정책기획관 보고서(2015)에 따르면 지방재정여건의 한계로 인한 투입자원의 제약, 중앙정부 정책들과 유사, 중복 및 단기 그리고 물량적 성과에 집착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에는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해결이 요구되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3. 청년농업인의 범위 및 지원 현황

#### 1) 청년농업인 정의를 위한 개념 정리

그렇다면 청년농업인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농업은 무엇이고, 농업인은 무엇인지,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 중 청년농업인을 규정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농업

우선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15.12.23 시행, 2009.9.27 전부개정, 1999.2.5 제정)에서는 기본이념(제2조, 2015.6.22 개정)으로서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제1항).’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제3조, 2013.3.23 제정, 2015.1.20, 2015.6.22 개정)로는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015.1.22 개정)이란,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말한다.

##### ② 농업인

기본법에서 바라본 농업인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제2항)’로

되어 있으며 기본법에서 사용하는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2009.12.15, 2015.12.22 개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농업경영체

기본법에서 말하는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6.4.29. 법률 제13931호, 2016.1.28., 타법 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제3항).’ 이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④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업경영인의 조건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우선, 연령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3.24 개정)로, 영농경력<sup>2)</sup>은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며 교육실적은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sup>2)</sup>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에 의하면,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용자·보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현황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에 대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총 138,403명이 선정되었다. 그 가운데 28,556명이 취소하여 2014년 현재 109,847명이다(표7). 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토지구입,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창업 기반자금 융자지원 최대 2억 원 한도, 연리 2%(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 사업경과로는 현재 총 2조 6천억 원이 지원되어 138천 명이 지원받았다. 충남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50명을 선발하고 있다.

<표 7>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사업 경과

연도	선정 인원(명)	대출 건	융자액(백만원)
1981~2006	125,423	97,177	1,970,960
2007	1,507	1,395	54,027
2008	1,705	1,424	54,762
2009	1,435	1,142	47,437
2010	1,559	951	40,970
2011	1,500	1,334	88,589
2012	1,564	861	64,618
2013	1,849	1,498	119,042
2014	1,861	1,795	161,358
합계	138,403	107,577	2,601,76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고 명시되어 있다.

<표 8> 후계농업경영인 작목별 분포

구분	1981~2011	2012	2013	2014	합계	비율
합계	133,129	1,564	1,849	1,861	138,403	100.0
수도작	25,376	274	210	339	26,199	18.9
원예(채소 + 화훼)	18,341	413	567	638	19,959	14.4
과수	6,823	236	296	351	7,706	5.6
특작	5,748	152	98	135	6,133	4.4
복합	23,342	75	349	110	23,876	17.3
한(육)우	37,489	231	136	236	38,092	27.5
낙농	8,034	39	45	29	8,147	5.9
기타축산	7,976	144	148	23	8,291	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⑤ 4-H: 만 34세 이하 청년층 농업인의 모임

### 4-H의 개념

4-H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단어의 의미를 각각 지(智)·덕(德)·노(勞)·체(體)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4-H운동은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4-H회’를 통한 단체활동으로 지·덕·노·체의 4-H이념을 생활화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4-H운동이 다른 청소년운동과 다른 점은 농업·환경·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청소년교육이 지육·덕육·체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4-H운동은 노육을 추가하고 현장교육과 실천과제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다(한국 4-H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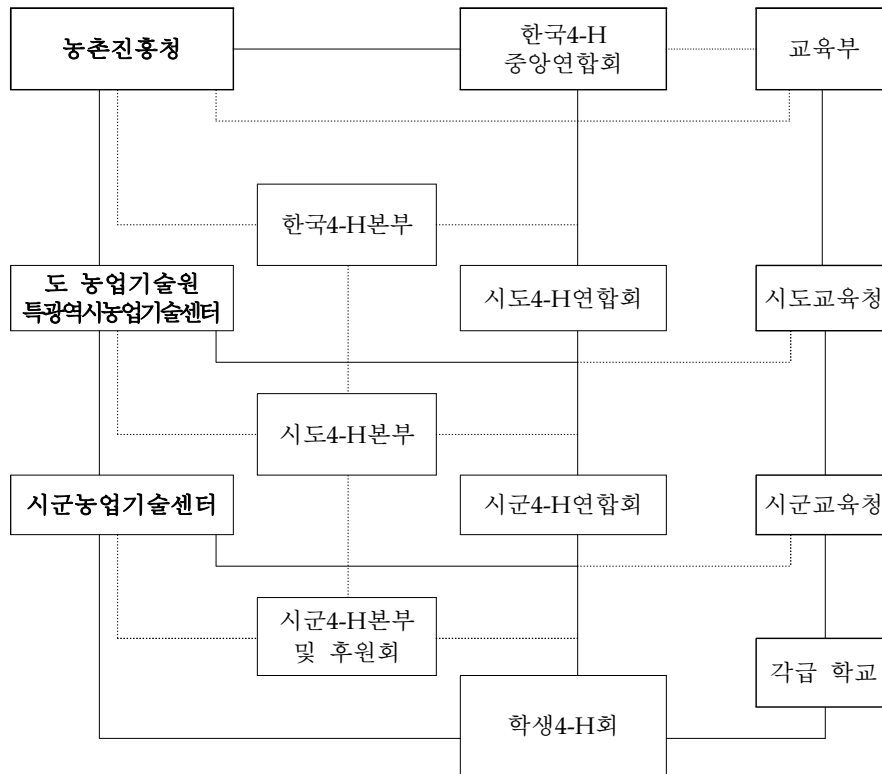


## 충남의 4-H

4-H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의 모임으로 크게 영농과 일반 형태로 나누어진다. 영농의 경우, 농업과 관련한 업종을 가진 34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일반형태는 농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사회활동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년 4-H 중에서 영농을 제외한 4-H는 거의 없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의 개념도 큰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농업에 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농업기술원 담당자 인터뷰). 충남의 경우 일반형태는 당진시와 보령시에 각 1명에 그쳤다. 2016년 현재 충남지역의 회원 수는 지난해보다 인원이 다소 늘어나 총 674명이었다. 귀농인들 역시 4-H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청년 4-H회의 육성방향은 후계농업인을 확보하고 농업의 6차 산업 등 농업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경영인으로서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경쟁시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 역량 향상과 품목별 전문적인 생산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농산물직거래, 창업농교육, 정보기술 활용 등 회원 중심의 지도, 지역중심 4-H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영농기반 조성 추진,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대학4-H회원들의 단위4-H연합회 가입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4-H의 육성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4-H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1] 4-H 육성체계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⑤ 귀농인 및 귀촌인

지금까지 귀농귀촌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2012)에서는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귀농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전입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농지원부, 경영체 등록 여부, 이장 확인 등 실제 영농 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 귀촌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것(사업자,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월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2월 23일 시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2009.7.20 제정, 2015.9.30 시행)’에서 ‘귀농어업인이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 2) 청년농업인의 범위

우선 ‘청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하며, ‘농업인’의 경우는 기본법에서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나 농업 일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년농업인이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인식 가운데 농업 및 농촌에 관여하는 청년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로써 청년농업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농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과 농업이 주목적이 아니지만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그룹이다. 전자의 그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부모 세대에 이어 농사를 짓고자 하는 ‘후계농업인<sup>3)</sup>’과 또 하나는 귀농하여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귀농인’이 있다. 후자의 그룹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하나는

---

3)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는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발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선대의 농사를 이어받은 후계자를 ‘후계농업경영인’이 아닌 ‘후계농업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농사와 관련 없이 농촌지역에 사는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와 농촌 생활을 위해 들어오거나 혹은 귀농을 목표로 하는 하나 아직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귀농인이 아닌 자’가 청년농업인의 범주에 들어간다(표9).

<표 9> 청년농업인의 구분

	부모가 농촌지역에 사는 자	새롭게 농촌지역에 들어온 자
농업	후계농업인	귀농인
비농업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	귀농인이 아닌 자

### 3)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정책 현황

그렇다면 이러한 네 종류의 청년농업인에 대한 충남의 지원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에 대해 우선 사업별로 정리하면 표10과 같다.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은 크게 ‘농업’과 ‘농업 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농업’은 크게 ‘창업’과 창업을 준비 단계인 ‘교육’의 두 가지로, ‘농업 외 부분’은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지원과 ‘주거’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후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 부분인 창업과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 부분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희망자에 한해서는 후계농업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지원 현황에서 제외되고 있는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으로 삼고자 한다.

‘농업’의 경우, 교육에서 창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취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농업 외’의 경우, 소득과 주거 문제 이외에 ‘지역공동체유지’와 관련한

분야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 대상자가 청년농업인이라는 단합된 형태로 아우를 수 있는 중간적 역할 창구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지원 정책 현황

구분	성격	후계농업인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농업	창업	- 영농 4-H회원 영농정착지원 - 후계농업 경영인지원		- 청년농산업창업지원 -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설명회) (귀농창업보육센터) - 귀농 창업자금 지원	-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설명회) (귀농창업보육센터) - (대학생)농대 영농창업특성 화사업
	취업				
	교육	-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 - 귀농귀촌 교육	-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빌 언덕’네트워크조성 운영(2017~) -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 귀농귀촌 교육 - (고교생)특성화농고인력육성 프로그램
농업 외	소득			-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2017~)	
	주거			-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인의 집:7개소) - 귀농 주택자금 지원	
	공동체 유지				
통합 지원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설명회(7개소) - 귀농창업지원센터(가칭) 설치(2017~) - 귀농지원센터(16개소) - 귀농귀촌정착지원(도시민농촌유치프로그램:7개소)	

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만 농업정책과에서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농업기술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은 49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고,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은 65세 이하 귀농인(주택자금은 연령제한 없음)으로 청년농업인 대상을 넘는 지원 사업이다.

#### 4)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 (1)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

충남도에서는 농업환경 변화와 청년일자리 문제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농업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문제로 40~50대 경영주의 공백에 따른 지식과 경험, 혁신능력을 갖춘 젊은 신규인력 유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도시청년의 다양한 재능을 농업과 접목시키려는 노력 가운데 이에 따른 도시청년의 농촌유입을 위한 여러 가지 농산업 창업지원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한 농업농촌 교류 및 이해 기회의 확대, 둘째 창업준비 및 실행, 정착 단계별 지원으로 사업효과 제고, 셋째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도시청년의 순조로운 유입 여건 마련 등이 있다.

충남의 도시청년 농촌 유치를 위한 창농 지원 총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은 표11과 같다.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되며, 5년간 사업비 총 182,836백만 원으로 국비가 8,753백만 원, 도비 5,100백만 원, 시군비 12,858백만 원, 기타 156,125백만 원으로 진행된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3개, 2017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이 3개이며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거나 보완되었다.

<표 11> 도시청년 농촌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 소요 예산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계	사업량	2,027	372	413	414	414	414	
	사업비	182,836	35,466	36,670	36,900	36,900	36,900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사업량	15	3	3	3	3	3	신규
	사업비	50	10	10	10	10	10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량	150	30	30	30	30	30	신규
	사업비	1,368	216	288	288	288	288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사업량	30	6	6	6	6	6	신규
	사업비	1,500	300	300	300	300	300	

사 업 명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영농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량	175	35	35	35	35	35	기존
	사업비	12,250	2,450	2,450	2,450	2,450	2,450	
귀농인 선도 농가 현장실습	사업량	260	52	52	52	52	52	기존
	사업비	1,560	312	312	312	312	312	
귀농·귀촌 교육	사업량	30	6	6	6	6	6	보완
	사업비	2,000	400	400	400	400	400	
귀농지원센터 운영	사업량	80	16	16	16	16	16	기존
	사업비	1,920	320	400	400	400	400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사업량	15	3	3	3	3	3	보완
	사업비	98	18	20	20	20	20	
귀농·귀촌 설명회	사업량	47	7	10	10	10	10	보완
	사업비	470	70	100	100	100	100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량	47	7	10	10	10	10	기존
	사업비	1,410	210	300	300	300	300	
도시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사업량	42	7	8	9	9	9	기존
	사업비	7,700	1,260	1,460	1,660	1,660	1,660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사업량	1,000	200	200	200	200	200	보완
	사업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도시청년‘조보농부 비밀언덕’ 네트워크 조성	사업량	72	0	18	18	18	18	신규
	사업비	1,080	0	270	270	270	270	
귀농창업지원 센터(가칭) 설치	사업량	4	0	1	1	1	1	신규
	사업비	1,600	0	400	400	400	400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사업량	60	0	15	15	15	15	신규
	사업비	600	0	150	150	150	150	

자료: 충남 농업기술원

## (2) 과제별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충남도가 실시하는 청년층 농촌유입을 위한 2016년 단기과제의 사업 대상 및 운영규모, 사업비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12, 13). 이와 관련한 사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2>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단기 지원 과제 대상 및 추진 체계

사업명	대상	운영 규모	사업비	추진체계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도시청년	3회 90명	10백만 원 (국50%, 도50%)	-농업기술원 -민간단체
청년농산업창업지원	39세 이하 신규 농 산업 창업(예정)자	31명	216백만 원 (국)	-농림축산식품부 -도 -시군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39세 이하 농업인	6명	300백만 원 (국50%, 시군50%)	-농촌진흥청 -도 -시군
영농 4-H회원 영농정착지원	34세 이하 영농 4-H회원	35명	2,450백만 원 (도20%, 시군40%, 자담60%)	-도 -시군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5년 이내 신규농 업인(귀농인) 또 는 39세 이하	52명	312백만 원 (국50%, 시군50%)	-도 -시군
귀농귀촌 교육	도시청년, 대학생 등 귀농귀촌 회 망자 및 초기자		400백만 원 (국 165, 도 95, 시군비 140)	-도 -시군
귀농지원센터 운영	16개소		320백만 원 (도110, 시군210)	-도 -시군
귀농귀촌 우수인력유입 및 안정정착 지원	5종 24개소		1,558백만 원 (국735, 도135, 시군690)	-도 -시군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65세 이하 귀농인 (주택자금 연령제 한없음)	200 세대		

자료: 충남 농업기술원(2015)



<표 13>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단기 지원 과제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 내용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농촌체험, 영농현장견학, 토론, 사례교환 등 창업 탐색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창업준비, 창업지원을 위해 2년간 월 80만원 -준비단계: 영농창업 인턴십 또는 연구 수당 지급 -초기단계: 창업안정자금 지원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시설, 가공, 창업, 제품개발, 마케팅 컨설팅 지원
영농4-H회원영농정착지원	농기계, 축사, 가공, 체험 등 영농기반 구축(‘충남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의거 매년 지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선도농가에 입주 영농체험 현장 실습교육 -5개월간 멘티(월 80만원), 멘토(월 40만원)
귀농귀촌 교육	-영농기술교육: 22과정 490명 -귀농귀촌 준비교육: 2과정 18회 520명 -대학생 농업농촌 가치 이해 교육: 4회 200명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귀촌종합상담
귀농귀촌 우수인력유입 및 안정정착 지원	-박람회 참가: 3회 -귀농귀촌설명회: 7개소 -귀농창업보육센터: 3개소 -귀농의 집: 7개소 -도시민농촌유치 프로그램: 7개소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창업) 3억 원 한도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농협융자 (주택구입, 신축) 50백만 원 한도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농협융자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2015)

### ①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2016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 도시청년의 농업·농촌 체험과 지역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의 이해증진 및 창농 기회의 장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영대상은 농업농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등 도시청년이다. 운영규모는 3회에 걸쳐 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10백만 원 가운데 국비와 도비가 반반이다.

2016년 6월 현재, 5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홍동면 친환경교육관 일원 등에서 개최되며 만 20~35세의 대학생 및 청년으로 구성되어 회당 30~35명으로 총 9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홍성의 홍성도농교류센터, 풀무학교 전공부, 젊은협업농장의 협조에 이루어진다(표14, 15).

5월에 진행된 두 번의 캠프에서는 각각 33명과 23명의 대학생이 참가를 하였고, 참석한

청년들의 반응으로는 ‘농촌에 정착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중요성 인식과 농촌에서 청년창업업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동안 농촌에 대해 알지 못했던 원예치료(장애우 등), 협동조합, 목공, 토종종자보존, 교육농 등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고 한다(2016.6.10 3농혁신 현안 자료).

<표 14>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일정

회차	일시	장소	인원
1차	5.14(토)~15(일)	홍성 홍동면 친환경교육관	33명
2차	5.21(토)~22(일)	김애마을회관 및 현지농장	23명
3차	7.2(토)~3(일)	서울, 예산·홍성 일원	30명

자료: 3농혁신 현안 자료

<표 15>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내용

회차	내용
1차	<b>주제: 농업·농촌 알기</b> -농촌생태 알아보기(농사체험), 농촌 일손돕기 및 농사게임 -대안적 삶(시골생활 이야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2차	<b>주제: 농업·농촌과 친해지기</b> -농사체험, 농(農)적 삶을 사는 사람들 만나기(마을활력소 9명) -사람책 읽기(5명(농부, 의료생협 의사 등)의 사람책을 만납니다)
3차	<b>주제: 농업·농촌과 일자리(존스러운 상상)</b> -1회:6.18(토), 서울 정독도서관 ‘나’로부터의 초대, 마음 비추기 -2회:6.19(일), 서울 정독도서관, 시골에서의 일과 직업 *소셜픽션 워크숍 -3회:7.2(토)~3(일), 충남 예산·홍성, 농촌의 발견, 청년의 일과 삶 삼선재단(장학, 청소년멘토링, 농촌지역청년활동가 및 농촌공동체 지원단체) 공동 추진

자료: 3농혁신 현안 자료

7월에 개최될 3차 캠프에서는 젊은협업농장이 주가 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친 사전 교육을 통해 마을과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학습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그간의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라 실패한 청년층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포함시켜서 청년농업인 귀농의 현실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한다(젊은협업농장 이사 인터뷰).

## ②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2016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 예정자로 준비단계에서 영농창업 인턴십 혹은 연수 수당이, 초기단계에서 창업안정자금 지원의 명목으로 2년간 월급 8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농식품부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군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청년 창업농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도에서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시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를 추천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리와 예산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 4월에 창업경진대회 개최 대상자를 선발하여 총 31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청년농업인 실태 부분에서 다루고자 한다.

## ③ 영농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청년 대상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영농 4-H회원으로 지원규모는 매년 인원 변동은 있지만 35명~42명가량이다. 2016년도에는 계룡을 제외한 14시군 35개소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업비는 2,450백만 원으로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이 40%로 재원은 매년 다르다. 2010년부터 실시되어 2016년 현재 총 351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업의 개념보다는 영농의 안정적 정착이 주목적이다. 정착한 다음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그 다음 문제로, 정착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창업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위험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업기술원 관계자 인터뷰).

영농4-H회원 가운데 영농정착 의지가 강한 우수 4-H회원을 선발하여 영농정착 희망사업 분석 후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자 사업시행 전·후 전문경영컨설팅 및 교육 추진으로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농·수·축·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반적인 애로사항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상사업으로는 농산물가공시설, 벼 육묘장 설치, 농기계구입,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삼포설치, 저온저장시설, 축사시설개선, 조사료 장비, 임산물 생산시설 등이며 농지구입은 제외된다. 사업은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도 반영하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과 비슷하지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보조금이 없는 대신 나이 제한이 만 18~50세인 것에 반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로 하고 있다. 재원비율이나 개소 수는 상황에 맞춰 매년 조절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4-H회원의 안정적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사업,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 및 관광농업 등이다. 사업분야 및 범위는 원칙적으로 규제 받는 분야나 작목은 없으나 사업효율 증대를 위해 종사형태별 보조 및 자부담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두고 있다<sup>4)</sup>.

보조한도 및 조건은 1세대 보조금 한도는 1억원(1차년도) 이내로 하고, 부부4-H회원의 경우 1인에 한한다. 단 보조금은 사업비 중 도비 및 시군비 보조지원금을 말한다. 영농정착 성공을 위해 기 사업자에 대하여 재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작목일 경우는 기존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업은 지원자가 신청해서 선발이 되면 한 번의 교육 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이지만, 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금 지원보다 교육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기 전에 일정의 교육을 통해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농업기술원 관계자 인터뷰). 비슷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CEO 사관학교제도 역시 사업역량을 키워주는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이 제도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표 16> 시군별 4-H회원 영농정착지원사업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35	2	3	3	2	2	3	0	2	3	3	3	2	3	2	2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4) 구체적으로는 경종은 육묘, 건조시설 및 장비, 농지임차료(5년 이상 장기임차료), 농기계 구입(중고농기계 불가) 등. 축산은 축사시설개선, 장비구입, 사육시설 및 내수면 어업의 사육 시설 및 장비 등(가축입식 불가). 시설원예는 단·연동 표준하우스, 고정식온실, 수경재배 시설 및 장비. 과수원에는 과원조성 기반정비, 수종갱신, 묘목구입, 특수 재배시설, 장비, 관·배수시설 등. 특용작물은 약용작물, 공예작물, 버섯류 재배시설 및 장비, 버섯원목과 종균(원목에 접종하는 종균), 인삼 등의 종근 종묘비 등. 화훼는 관상수, 분재, 초목본류 재배시설 및 장비, 묘목 등이며, 농산물 저장, 관광농업(대표농산물 직판장, 판매점시설, 장비), 가공시설 및 장비(자가 및 단지, 지역생산 농산물의 저장 가공)가 있다. 기반조성용 중기사용, 종균 및 종근, 고용 노임, 등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충남의 영농정착지원사업의 틀에서 파생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9세 이하의 4-H회 출신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6명(보령, 논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각 1개소)에 대해 300백만 원을 국비와 시군비 반반으로 지원하였다.

사업 목적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조기정착 및 농촌유입을 유도하고 신기술과 결합된 유형별(신기술, ICT, 벤처, 창업, 가공·관광, 기타) 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 및 조기 영농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 가공, 창업, 제품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이를 위한 역량 교육으로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사업대상자의 경영능력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도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민간 등의 전문가에 의한 교육(직접·위탁 교육)을 실시하며 아이디어와 접목 가능한 신기술에 대한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집중컨설팅으로는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이 실시되며 지도기관, 대학, 기업, 명인 등을 활용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러한 교육·컨설팅을 통해 초기 사업계획상의 문제점을 보완 후 사업계획의 구체화·실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사업 취지와는 별도로 단 1명만을 선발하여 100% 지원하는 형태의 경우 잡음이 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남의 시에서도 정보 공개와 선발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사업 전개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⑤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이 지원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것으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체험 등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률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선도농가가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에 필요한 실습교육(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39세 이하 청장년으로 지원규모는

52명이다. 사업비는 총 312백만 원(국비 156, 시군비 156)로 선도농가인 멘토와 귀농인 멘티가 한 팀으로 선도농장에 입주하여 영농체험 및 현장 실습교육을 받게 된다. 멘티에게는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월 80만 원이 주어지며 멘토는 월 4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며 5개월간 진행된다.

## ⑥ 귀농귀촌 교육

지원대상으로는 도시청년, 대학생 등 귀농귀촌 희망자 및 초기자로 사업비는 400백만 원이며 국비 165, 도비 95, 시군비 140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농과대학 농기계교육, 영농기초기술, 귀농대학 심화과정 등의 영농기술교육이 22과정 490명이고, 귀농귀촌 준비 교육으로는 2개 과정 1회에 5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서울시 협력 귀농귀촌 현장 교육 등이 실시되었으며, 대학생 농업농촌 가치 이해 교육은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귀농귀촌 교육은 시군별로 지역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시행에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군의 경우 특히 귀농인 교육 및 조직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군 자체에서 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면서 기술보다도 이주 후의 지역 주민과의 융합을 도모하는 측면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산군 다음으로 귀농 가구 수가 많은 논산시의 경우도 딸기와 상추 재배가 특화된 지역으로 농업 창업에 초점을 둔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왔다.

## ⑦ 귀농지원센터 운영

충청남도 16개소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도 1개소와 시군 1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업비는 320백만 원으로 도비 110, 시군비 210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청년층을 포함한 귀농귀촌 예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 안내 등이다.

충남의 귀농지원센터 운영도 역시 시군별로 지역의 의지와 담당 인력의 역량에 따라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홍성군 같은 경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민간 협력 기구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군의 특성을 살린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 귀촌인 상담창구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12년에 처음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4년에 기술지원과에서 분리되었다. 현 귀농귀촌 지원 담당 사무장은 2015년부터 현재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상담과정에서부터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체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군의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 ⑧ 귀농귀촌 우수 인력 유입 및 안정 정착 지원

2016년 사업량으로는 5종 24개소에 이루어지며 사업비는 1,558백만 원으로 국비 735백만 원, 도비 135백만 원, 시군비 690백만 원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충남 귀농여건 홍보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가 3회,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투어 등 귀농귀촌 설명회가 7개소, 거주공간 제공 및 교육 원스톱 귀농창업지원센터 3개소, 귀농 준비기간 주거 공간 해결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이 7개소,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이 7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 유용한 지원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귀농인의 집의 경우, 충남에서는 2015년 현재 총 6개군에 23개소가 마련되었다. 홍성군이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금산군 2개소, 부여군 2개소, 서천군 4개소, 청양군 1개소, 예산군이 2015년도에 2개소가 마련되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목받고 있는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의 경우, 충남에서는 금산군과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의 4개 지역이 신규 또는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7년에 사업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금산군이 2007년에 처음으로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홍성군과 청양군이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부여군이, 2016년에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새롭게 선정된 상태이다.

### (3)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과제

충남에서는 농업기술원(역량개발과)이 중심이 되어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농산업 창업지원 계획’ 하에 창업지원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2007년부터 실시되는 신규사업으로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빌언덕’ 네트워크 구성과 귀농창업지원센터(가칭) 설치,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3가지가 제시되었다(표17, 18). 세부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빌언덕’ 네트워크 조성 운영

이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쳐 반영된 것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청년에게는 ‘비빌언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기존의 멘토, 멘티 제도와 같이 월급제 개념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34세 이하 도시청년으로 사업비는 270백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이다. 사업내용으로는 디딤돌 교육, 일자리 등 지역진입 플랫폼 구축 등이다. 품목과 경영능력 등 영농여건을 탐색하고 훈련농장을 지정하여 영농인턴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비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량으로는 6조직 18명으로 두고 있으며, 사업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군별 1개씩 6개 농장에 대해 1조직 3명으로 구성하여 농장을 돌아가면서 1년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 17>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대상 및 사업비 내역

사업명	대상	사업비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빌언덕’ 네트워크 조성	34세 이하 도시청년	270백만원 (도30%, 시군70%)
귀농창업지원센터(가칭) 설치	전 귀농인	400백만원 (국50%, 시군50%)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39세 이하 귀농희망부부 및 가족	150백만원 (도30%, 시군70%)

자료: 충남 농업기술원(2015)

<표 18> 도시청년 농촌유입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빌언덕’ 네트워크 조성	-시군별 1개에 총 6개 농장에 각 3명 도시청년 -영농여건 탐색 후 영농인턴실시 -교육훈련비, 생활안정자금 지원
귀농창업지원센터(가칭) 설치	-농업기술원 인력기술 인프라에 민간전문가협력추진 -창업교육 및 컨설팅, 인허가, 유통 등 지원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단체(농가) 연계 -가족 농사체험 기회 제공

자료: 충남 농업기술원(2015)

## ② 귀농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농업기술원 인력에 기술 인프라를 더하여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추진하는 형태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사업 코칭을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과 경영컨설팅, 인허가와 유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업비는 400백만 원(국비 200 시군비 200)으로 농업기술원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과연 농업기술원 내에서 이러한 업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크며 이미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어 창업지원 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에 실시되더라도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③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운영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귀농희망부부 또는 가족으로 사업량은 15개소, 사업비 150백만 원으로 도비 45, 시군비 105이다.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역단체가 연계하여 가족이 함께 농사체험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선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그와 관련한 지원 정책의 현황을 국가와 중앙정부, 충남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을 아우르는 지원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지원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충남의 청년농업인 정책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으로는 중점 추진과제 중에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과정에서 응용해볼 수 있는 것이 제시되어 있기도 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충남의 지원 정책은 국가사업으로 매칭하는 경우가 많았고, 도 자체 사업으로는 영농 4-H 영농정착지원이 유일했다. 신규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의 경우 그 취지와는 별도로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고, 대상자 선발까지 이루어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보류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귀농인과 예비귀농인을 포함하는 관련 지원으로는 기존의 귀농귀촌지원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과연 현행 지원책에서 나아가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청년농업인의 실태 조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 제4장 충남의 청년농업인 실태

### 1. 개요

이 장에서는 현행 지원 정책에 통계로 중심으로 한 충남의 청년농업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2절에서는 충남의 시군별 농가 수 및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청년농업인의 수는 어떠한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충남 내 청년농업인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충남의 만 34세 이하 청년농업인의 농업 실태를 분석한다. 이들은 시군별로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하고 있으며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떠한 작목들을 재배하고 있는지 종사형태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청년층은 시군별 전체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과는 어떻게 같고 또 다른 농사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만, 6월 현재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의 시군별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만 34세 이하 농업인의 수는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얻었다. 만 34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4-H회원 자료를 활용하였고, 만 34세 이하의 농업인 가운데 4-H로 등록되지 않은 청년농업인은 시군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또한 남녀 비율 및 시군별 재배 작목은 4-H회원의 기본 자료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시군별 재배 작목은 자유기입한 품목을 시군별 전체 비율과 비교하기 위해 재분류하였다. 2절과 3절의 결과를 시군별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GIS 기반의 지도 작업을 거쳤다<sup>5)</sup>.

4절에서는 충남의 청년농업인 가운데 귀농인의 농업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관련

---

5) 지금까지 농업 분야에서는 공간 베이스 개념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본 원에서 정책지도를 발간하여 주제별 테마를 시군별로 한 눈에 알기 쉽게 이슈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에 관한 지도를 발간(현재 2호)하였다.

자료의 부재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인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31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였다<sup>6)</sup>. 만 39세 이하의 비율을 조사하고 재배작목, 특히 이들의 재배작목은 앞 절의 후계농업인이 주 회원인 4-H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농업 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절에서는 그 시사점을 짚어본다.

## 2. 충남의 농가 실태

### 1) 충남의 농가 수 및 농가 인구의 추이

2015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6)에 따르면, 2015년 충남의 농가 수는 132,011가구로 2010년 대비 약 9.5%가량 감소하였으며 2005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약 15.8% 감소하였다<sup>7)</sup>.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의 비율은 14.9%로 2005년 24.7%, 2010년 20.0%와 비교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충남 시군별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충남 전체적으로 24.7%를 차지한 가운데, 청양군이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금산군(44.0%), 부여군(43.4%), 태안군(4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충남의 가구 수 대비 농가 수의 비율은 20.0%로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하고 있으며, 시군별로는 청양군(51.6%), 부여군(40.1%), 태안군(3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역시 가구 수 대비 농가 수 비율이 14.9%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농가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청양군(44.9%), 부여군(29.3%), 예산군(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 수의 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충남 전체적으로 -8.2%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산군(-12.4%), 서천군(-11.5%)에서 가장 높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계룡시와 청양군은 각각 9.3%, 0.3%의 증가 혹은 정체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양군의 경우는 귀농·귀촌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유입된 결과로 판단된다.

---

6) 개인 정보 관련 문제로 귀농귀촌 관련 담당 공무원조차도 귀농인의 정보에 대해 취득하기가 어려워져 실제 귀농귀촌 인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사업의 선정 대상자의 경우는 정보가 파악되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도 농업기술원의 협조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월 선정 이후 6월 말 현재까지 보조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7) 2012년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되어 충청남도에서 분리됨에 따라 기존의 자료에서 연기군의 통계는 제외하였다.

〈표 19〉 충남 농가 수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비율 추이

단위 : 가구, %

시군	2005년	2010년	2015년	평균 증감률	2005년 대비	
					증감	증감률
충남	156,773(24.7)	145,904(20.0)	132,011(14.9)	-8.2	-24,762	-15.8
계룡시	469(4.8)	549(4.1)	558(3.9)	9.3	89	19.0
공주시	12,652(28.6)	12,089(27.0)	10,151(20.9)	-10.2	-2,501	-19.8
금산군	8,848(44.0)	7,638(36.3)	6,783(27.0)	-12.4	-2,065	-23.3
논산시	13,120(29.4)	11,925(26.3)	10,572(18.8)	-10.2	-2,548	-19.4
당진시	14,591(35.9)	13,489(25.5)	11,535(16.0)	-11.0	-3,056	-20.9
보령시	9,843(28.0)	9,006(23.3)	8,645(18.5)	-6.3	-1,198	-12.2
부여군	12,071(43.4)	10,905(40.1)	9,607(29.3)	-10.8	-2,464	-20.4
서산시	13,564(26.8)	13,320(22.6)	12,230(17.5)	-5.0	-1,334	-9.8
서천군	8,518(37.1)	7,136(31.3)	6,652(25.0)	-11.5	-1,866	-21.9
아산시	11,519(16.7)	10,499(10.9)	9,464(7.7)	-9.4	-2,055	-17.8
예산군	12,127(40.6)	11,118(36.4)	10,314(27.5)	-7.8	-1,813	-15.0
천안시	12,574(7.2)	12,406(5.9)	11,651(4.7)	-3.7	-923	-7.3
청양군	6,819(54.8)	6,427(51.6)	6,837(44.9)	0.3	18	0.3
태안군	8,950(41.1)	8,315(37.7)	7,386(24.6)	-9.1	-1,564	-17.5
홍성군	11,108(36.5)	11,082(33.9)	9,626(23.5)	-6.7	-1,482	-13.3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주 : ( )안은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수 비율임.

2015년 충청남도의 농가 인구는 308,467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약 9.0% 감소한 수치이다. 2005년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약 27.7% 감소하였으며 농가 수와 더불어 농가 인구 역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별로 평균 농가 인구 또한 2005년 2.72명, 2010년 2.60명, 2015년 2.34명으로 농가를 구성하고 있는 농가 인구 역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태안군 등지에서 충남의 평균 증감률보다 더 높은 수치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계룡시의 경우 인구의 증감이 있었지만, 2005~2010년 평균 인구 증감률이 6.0%로 타 시군과는 다르게 농가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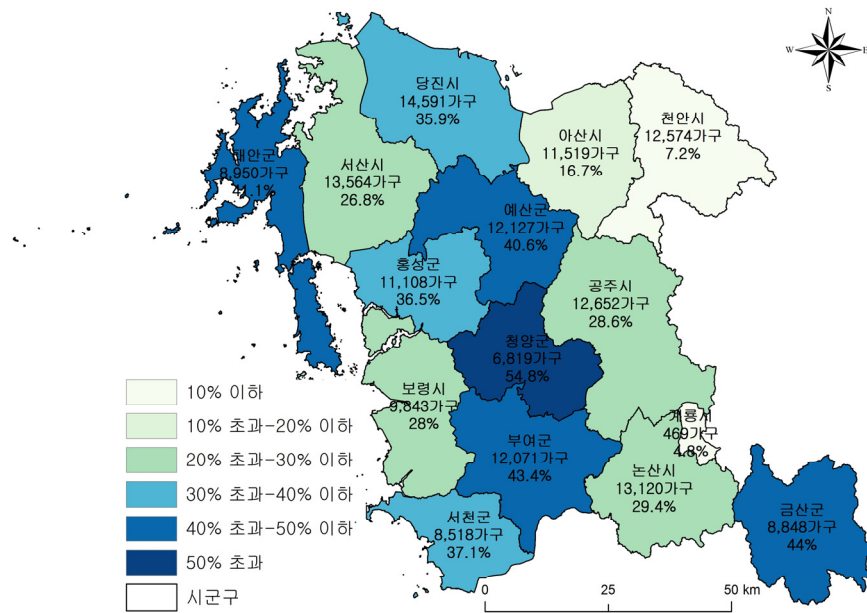
〈표 20〉 충남 농가 인구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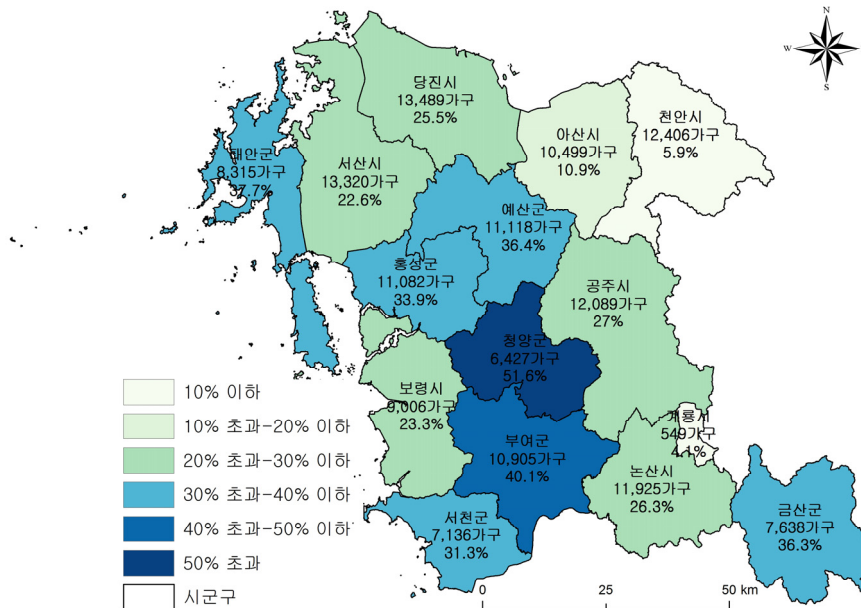
시군	2005년	2010년	2015년	평균 증감률	2005년 대비	
					증감	증감률
충남	426,697(100.0)	379,096(100.0)	308,467(100.0)	-14.9	-118,230	-27.7
계룡시	1,362(0.3)	1,647(0.4)	1,499(0.5)	6.0	137	10.1
공주시	35,038(8.2)	31,577(8.3)	24,112(7.8)	-16.8	-10,926	-31.2
금산군	22,644(5.3)	19,188(5.1)	14,642(4.7)	-19.5	-8,002	-35.3
논산시	36,258(8.5)	31,185(8.2)	24,910(8.1)	-17.1	-11,348	-31.3
당진시	39,905(9.4)	35,729(9.4)	27,235(8.8)	-17.1	-12,670	-31.8
보령시	25,682(6.0)	22,632(6.0)	19,794(6.4)	-12.2	-5,888	-22.9
부여군	31,876(7.5)	27,798(7.3)	22,213(7.2)	-16.4	-9,663	-30.3
서산시	36,675(8.6)	33,778(8.9)	28,246(9.2)	-12.1	-8,429	-23.0
서천군	21,391(5.0)	17,255(4.6)	14,655(4.8)	-17.2	-6,736	-31.5
아산시	34,791(8.2)	30,019(7.9)	23,233(7.5)	-18.2	-11,558	-33.2
예산군	32,439(7.6)	28,280(7.5)	23,744(7.7)	-14.4	-8,695	-26.8
천안시	39,571(9.3)	36,774(9.7)	31,268(10.1)	-11.0	-8,303	-21.0
청양군	17,234(4.0)	15,694(4.1)	14,960(4.8)	-6.8	-2,274	-13.2
태안군	22,406(5.3)	19,266(5.1)	15,720(5.1)	-16.2	-6,686	-29.8
홍성군	29,425(6.9)	28,274(7.5)	22,236(7.2)	-12.6	-7,189	-24.4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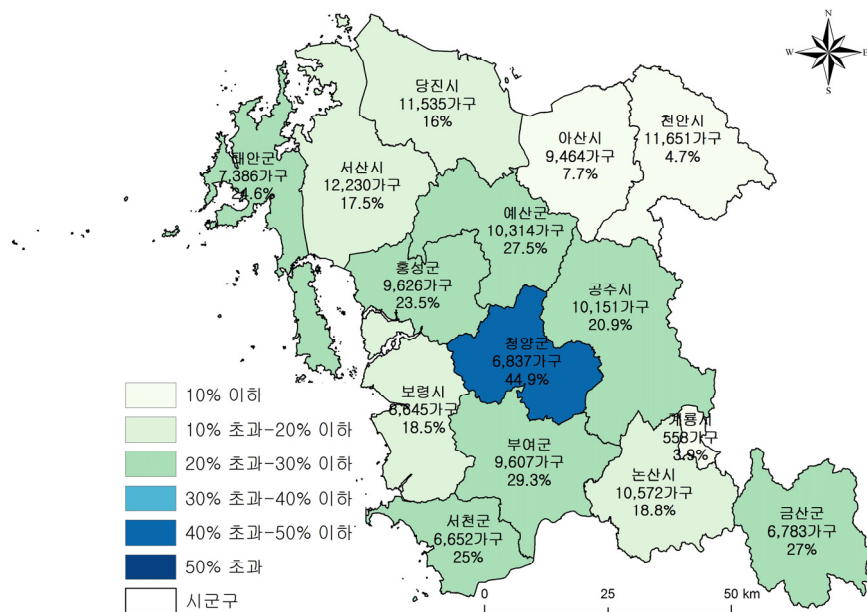
주 : ( )안은 충남대비 시군별 인구 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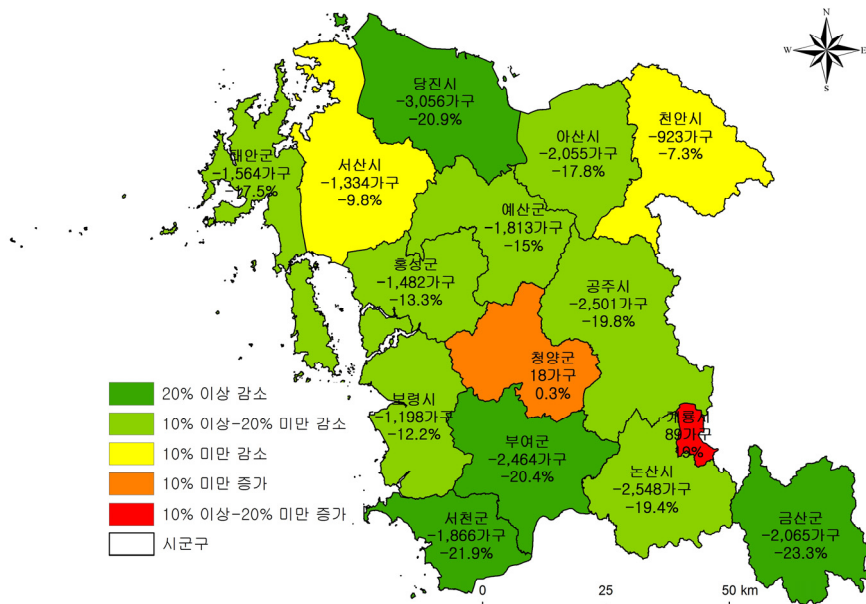
[그림 2] 2005년 충남 시군별 농가 분포도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비율



[그림 3] 2010년 충남 시군별 농가 분포도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비율



[그림 4] 2015년 충청남도 시군별 농가 분포도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농가 비율



[그림 5] 2015년 충청남도 농가 수의 2005년 대비 증감률

## 2) 충남의 청년농업인 인구 추이

다음은 충청남도의 만 39세 이하 농가 수 자료이다. 2015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16)에 따르면, 2015년 충남의 만 39세 이하 농가 수는 1,54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59.6%가량 감소하였으며 2005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약 68.8% 감소하였다. 충남의 농가 수 대비 39세 이하 농가 수 비율은 1.2%로 2005년 3.2%, 2010년 2.6%와 비교하여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충남 전체적으로 -41.1%의 높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40대 이상의 농가로 이루어져 만 39세 이하의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충청남도 만 39세 이하 농가 수 추이

단위 : 가구, %

시군	2005년	2010년	2015년	평균증감률	2005년 대비	
					증감	증감률
충남	4,943(3.2)	3,821(2.6)	1,544(1.2)	-41.1	-3,399	-68.8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주 : ( )안은 충남 농가 수 대비 만 39세 이하 농가 수의 비율임.

2015년도 충청남도의 만 39세 이하 농가 인구는 57,041명으로 이는 2010년도에 비해 약 41.0% 감소하였으며, 2005년과 비교하면 약 53.4% 감소하였다. 평균 증감률 또한 -31.0%로 매우 높은 수치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39세 이하 인구의 시군별 비율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12,400명(1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당진군(9.6%), 아산시 (9.5%), 공주시(8.4%), 논산시(8.4%)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 충청남도 만 39세 이하 농가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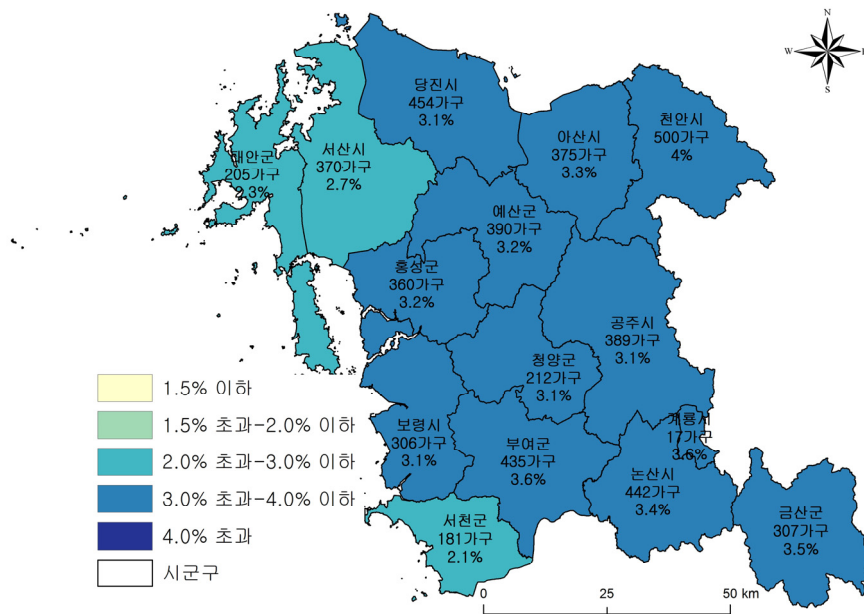
단위 : 명, %

시군	2005년	2010년	2015년
충남	122,482(100.0)	96,753(100.0)	57,041
천안시	14,773(12.1)	12,400(12.8)	-
공주시	10,440(8.5)	8,159(8.4)	-
보령시	6,805(5.6)	5,157(5.3)	-
아산시	11,948(9.8)	9,154(9.5)	-
서산시	10,227(8.3)	8,018(8.3)	-
논산시	10,912(8.9)	8,136(8.4)	-
계룡시	435(0.4)	571(0.6)	-
금산군	6,183(5.0)	4,785(4.9)	-
부여군	8,463(6.9)	6,705(6.9)	-
서천군	4,851(4.0)	3,408(3.5)	-
청양군	4,223(3.4)	3,531(3.6)	-
홍성군	7,888(6.1)	7,109(7.3)	-
예산군	8,723(7.1)	6,698(6.9)	-
태안군	5,371(4.4)	3,655(3.8)	-
당진군	11,240(9.2)	9,267(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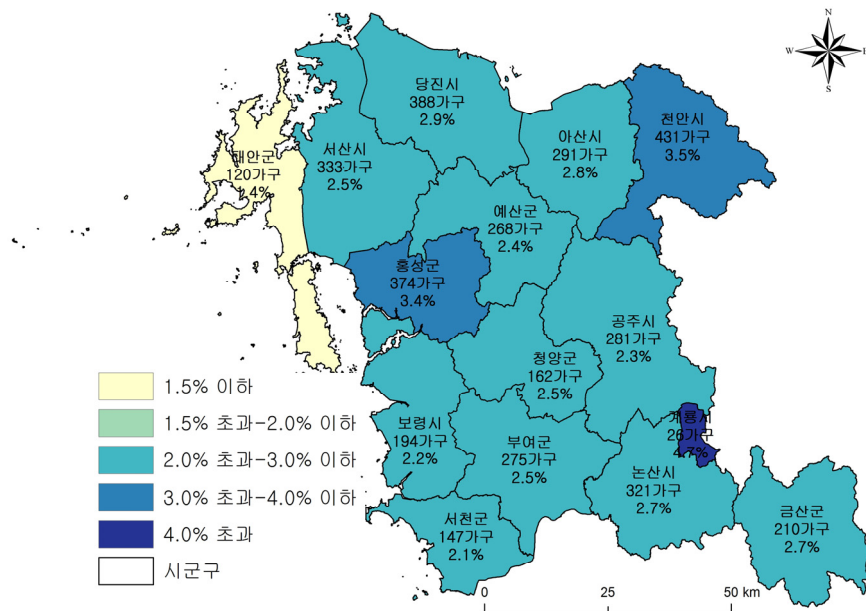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주 : 2015년도 시군별 농가 인구는 미발표

( )안은 충청남도 대비 시군별 농가인구 비율임.



[그림 6] 2005년도 충남 시군별 만 39세 이하 농가 분포도



[그림 7] 2010년도 충남 시군별 만 39세 이하 농가 분포도

한편 충남 전체의 만 34세 이하 농가 수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 농가 수는 1,039 농가로 이는 2005년보다 약 36%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계룡시의 경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계룡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태안군(-56.9%), 보령시(-54.1%), 청양군(-53.2%), 부여군(-50.0%) 등지에서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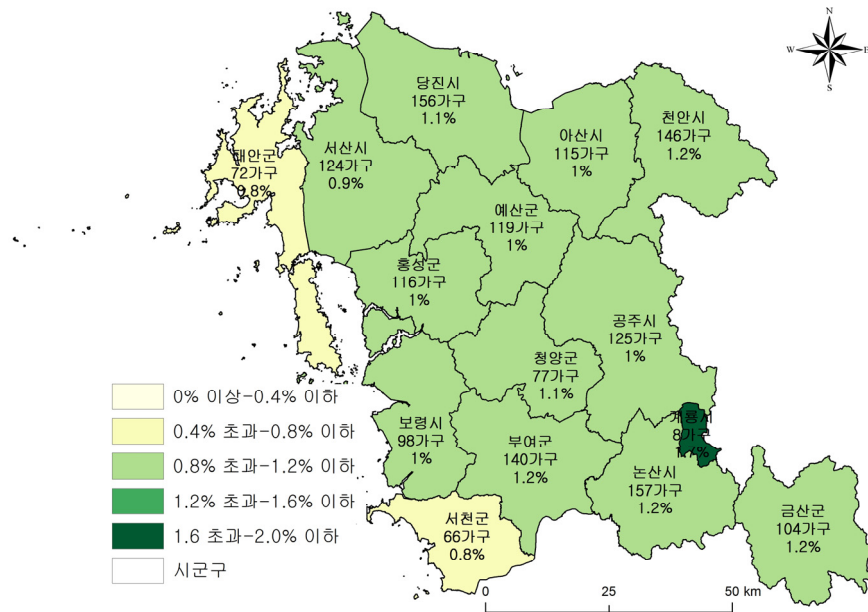
전체 농가에서 만 34세 이하 농가 수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5년도에 1.0%에서 2010년 0.7%로 약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상 많은 비율의 감소는 아니지만 만 34세 이하 농가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005년도를 살펴보면 계룡시가 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논산시, 천안시, 부여군, 금산군 등이 각각 1.2%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도 역시 계룡시가 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천안시(0.9%),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금산군이 각각 0.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23〉 충남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가 수 및 전체 농가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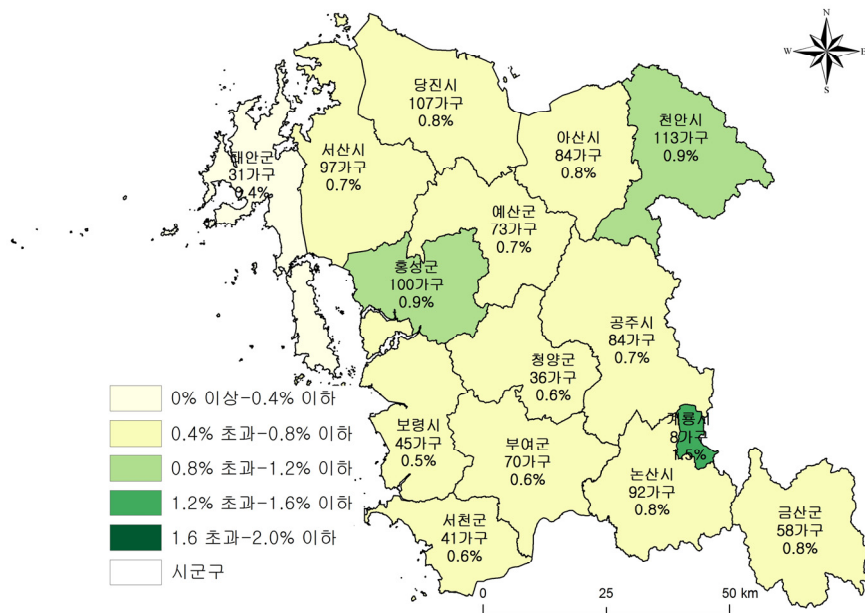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시군	2005년		2010년		증감률
	농가 수	전체농가대비 비율	농가 수	전체농가대비 비율	
충남	1,623	1.0	1,039	0.7	-36.0
계룡시	8	1.7	8	1.5	0.0
공주시	125	1.0	84	0.7	-32.8
금산군	104	1.2	58	0.8	-44.2
논산시	157	1.2	92	0.8	-41.4
당진시	156	1.1	107	0.8	-31.4
보령시	98	1.0	45	0.5	-54.1
부여군	140	1.2	70	0.6	-50.0
서산시	124	0.9	97	0.7	-21.8
서천군	66	0.8	41	0.6	-37.9
아산시	115	1.0	84	0.8	-27.0
예산군	119	1.0	73	0.7	-38.7
천안시	146	1.2	113	0.9	-22.6
청양군	77	1.1	36	0.6	-53.2
태안군	72	0.8	31	0.4	-56.9
홍성군	116	1.0	100	0.9	-13.8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그림 8] 2005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가 분포도 및 전체농가 대비 비율



[그림 9] 2010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가 분포도 및 전체농가 대비 비율

### 3. 충남의 만 34세 이하 청년농업인 농업 실태

#### 1) 충남의 만 34세 이하 농업인 수

표24는 충청남도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업인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만 34세 이하의 4-H 회원과 만 34세 이하의 농업인 가운데 4-H로 등록되지 않은 청년농업인을 시군별로 전수 조사한 결과 각각 674명과 297명으로 총 9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청년(영농) 4-H의 경우, 농업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며, 충남이 거주지인 34세 이하의 청년은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4-H의 경우 후계농업인과 귀농인의 구분은 없으나 대부분이 후계농업인이다. 전수 조사대상인 297명의 시군별 전수 조사는 만 34세 이하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만 34세 이하 총 농업인 수는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 만 34세 이하 농업인의 경우 논산시가 144명으로 가장 많으며, 계룡시가 0으로 가장 적다. 시군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논산시가 1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여군(9.7%), 보령시(8.0%), 공주시(7.8%), 서천군 및 홍성군(각각 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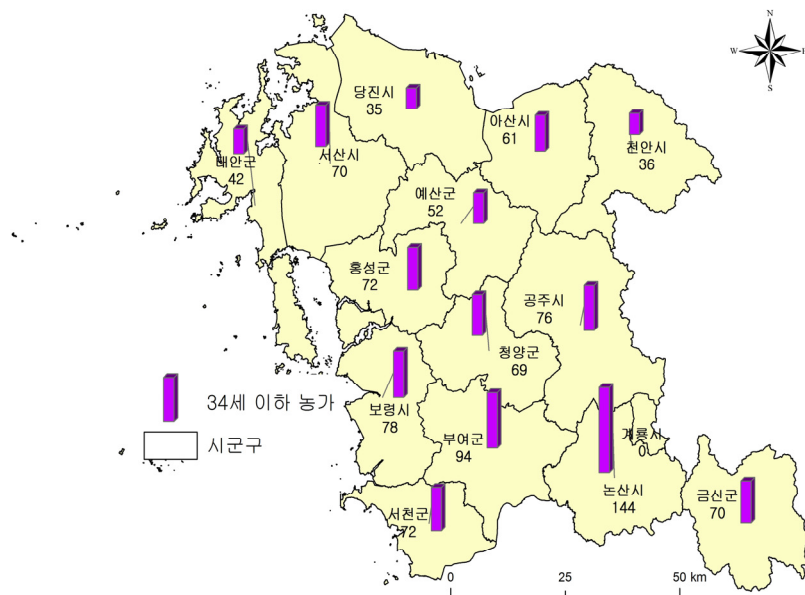
8) 실제로 4-H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 가운데 최저 나이는 25세였다.

<표 24> 2016년 충청남도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업인 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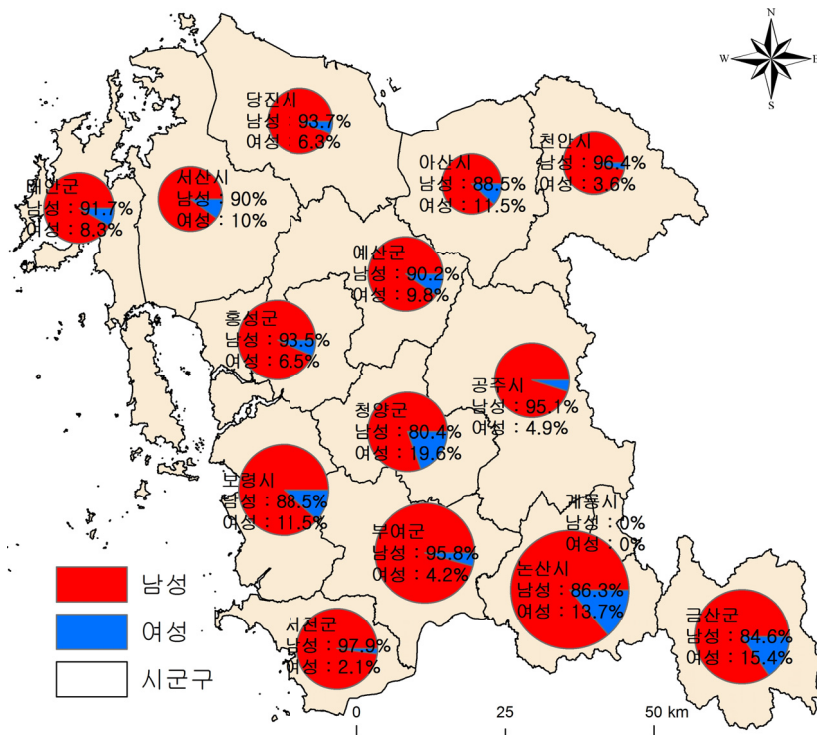
시군	회원 수	비율
충남	971	100.0
계룡시	0	0.0
공주시	76	7.8
금산군	70	7.2
논산시	144	14.8
당진시	35	3.6
보령시	78	8.0
부여군	94	9.7
서산시	70	7.2
서천군	72	7.4
아산시	61	6.3
예산군	52	5.4
천안시	36	3.7
청양군	69	7.1
태안군	42	4.3
홍성군	72	7.4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그림 10] 2016년 현재 충남 시군별 만 34세 이하 농업인 분포도

이하의 결과는 농업기술원의 협조로 취득한 2016년 4-H회원 자료(674명)를 바탕으로 하였다. 2016년 현재 만 34세 이하 4-H회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80%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10% 이상이며, 특히 청양군의 경우 19.6%로 충남 시군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11] 2016년 충남 시군별, 성별 4-H회원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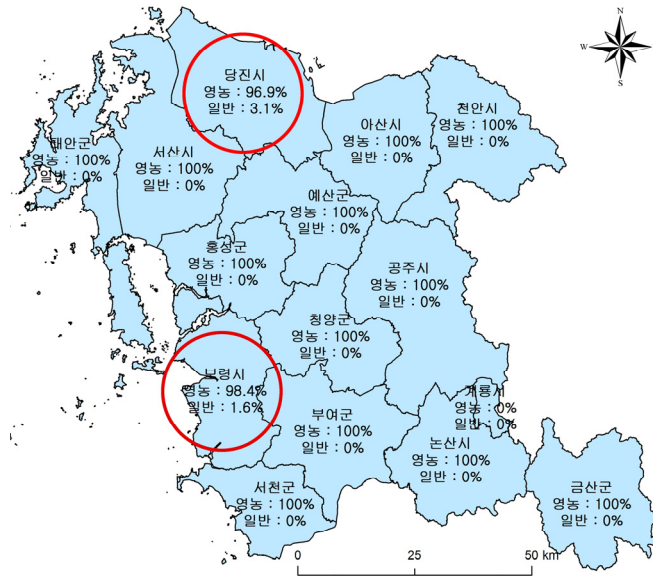
2016년 충남 4-H회원의 영농회원과 일반회원 형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영농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진시와 보령시에서 각각 1명이 농업과 상관이 없는 일반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다.

〈표 25〉 2016년 충남 시군별 4-H 영농회원 및 일반회원 현황

시군	영농		일반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공주시	41	100.0%	0	0.0%	41	100%
금산군	65	100.0%	0	0.0%	65	100%
논산시	102	100.0%	0	0.0%	102	100%
당진시	31	96.9%	1	3.1%	32	100%
보령시	60	98.4%	1	1.6%	61	100%
부여군	72	100.0%	0	0.0%	72	100%
서산시	30	100.0%	0	0.0%	30	100%
서천군	48	100.0%	0	0.0%	48	100%
아산시	26	100.0%	0	0.0%	26	100%
예산군	41	100.0%	0	0.0%	41	100%
천안시	28	100.0%	0	0.0%	28	100%
청양군	46	100.0%	0	0.0%	46	100%
태안군	36	100.0%	0	0.0%	36	100%
홍성군	46	100.0%	0	0.0%	46	100%
합계	672	99.7%	2	0.3%	674	100%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그림 12] 2016년 충남 시군별 4-H 영농회원 및 일반회원 분포도

## 2) 충남 시군별 농업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 비교

여기에서는 충남 시군별 농업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충청남도의 농업 종사가구원의 경우 최근 자료의 부재로 통계청의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우선 충청남도의 농업 종사가구원의 종사형태는 표 26과 같다. 충남 전체 종사형태별 재배 농가 수의 비율 가운데 논벼의 비율이 58.0%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채소가 14.8%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남 전체의 비율은 논벼가 5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모든 시군에서 논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품목의 주산지인 일부 시군은 논벼의 재배면적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의 경우 배, 포도의 주산지로 과수 재배 인구가 20.5%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주시 역시 밤 주산지로 과수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태안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서산시의 경우 채소 재배 인구가 충남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시군은 마늘, 고추, 시설채소, 쌈채소 등의 주산지로 채소 재배 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의 경우 특용작물 재배 인구(33.5%)가 논벼 재배 인구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인삼 및 약초의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표 26〉 충청남도 농업 종사가구원의 종사형태(2010년 기준)

단위 : 명, %

시군	계	논벼	식량	채소	특용	과수	화훼	축산	기타
충남	287,635 (100.0)	166,823 (58.0)	8,392 (6.4)	<b>42,559 (14.8)</b>	11,927 (4.1)	20,305 (7.1)	2,664 (0.9)	22,576 (7.8)	2,389 (0.8)
천안시	23,838 (100.0)	12,083 (50.7)	2,344 (9.8)	1,995 (8.4)	708 (3.0)	<b>4,888 (20.5)</b>	209 (0.9)	1,530 (6.4)	81 (0.3)
공주시	23,186 (100.0)	12,688 (54.7)	1,360 (5.9)	2,665 (11.5)	645 (2.8)	2,454 (10.6)	165 (0.7)	<b>3,100 (13.4)</b>	109 (0.5)
보령시	16,662 (100.0)	11,637 (69.8)	1,092 (6.6)	<b>1,685 (10.1)</b>	442 (2.7)	424 (2.5)	65 (0.4)	1,229 (7.4)	88 (0.5)
아산시	20,342 (100.0)	13,540 (66.6)	1,513 (7.4)	1,665 (8.2)	311 (1.5)	<b>1,877 (9.2)</b>	97 (0.5)	1,228 (6.0)	111 (0.5)
서산시	25,461 (100.0)	16,348 (64.2)	1,665 (6.5)	<b>4,608 (18.1)</b>	479 (1.9)	315 (1.2)	521 (2.0)	1,379 (5.4)	146 (0.6)
논산시	22,456 (100.0)	11,831 (52.7)	794 (3.5)	<b>6,225 (27.7)</b>	643 (2.9)	1,316 (5.9)	132 (0.6)	1,349 (6.0)	166 (0.7)
계룡시	1,037 (100.0)	505 (48.7)	78 (7.5)	<b>258 (24.9)</b>	67 (6.5)	72 (6.9)	18 (1.7)	38 (3.7)	1 (0.1)
금산군	14,211 (100.0)	5,229 (36.8)	1,336 (9.4)	1,390 (9.8)	<b>4,766 (33.5)</b>	452 (3.2)	78 (0.5)	542 (3.8)	418 (2.9)
부여군	20,841 (100.0)	10,675 (51.2)	620 (3.0)	<b>4,983 (23.9)</b>	1,258 (6.0)	2,036 (9.8)	143 (0.7)	1,092 (5.2)	34 (0.2)
서천군	13,405 (100.0)	9,614 (71.7)	790 (5.9)	<b>1,593 (11.9)</b>	309 (2.3)	283 (2.1)	73 (0.5)	586 (4.4)	157 (1.2)
청양군	11,889 (100.0)	6,348 (53.4)	518 (4.4)	<b>2,265 (19.1)</b>	528 (4.4)	764 (6.4)	40 (0.3)	1,376 (11.6)	50 (0.4)
홍성군	20,812 (100.0)	11,284 (54.2)	1,589 (7.6)	2,830 (13.6)	430 (2.1)	345 (1.7)	136 (0.7)	<b>3,962 (19.0)</b>	236 (1.1)
예산군	21,200 (100.0)	12,176 (57.4)	864 (4.1)	<b>2,900 (13.7)</b>	573 (2.7)	2,262 (10.7)	178 (0.8)	1,982 (9.3)	265 (1.3)
태안군	15,596 (100.0)	8,485 (54.4)	1,218 (7.8)	<b>4,337 (27.8)</b>	300 (1.9)	85 (0.5)	464 (3.0)	560 (3.6)	147 (0.9)
당진군	26,280 (100.0)	18,868 (71.8)	1,692 (6.4)	<b>2,365 (9.0)</b>	225 (0.9)	788 (3.0)	130 (0.5)	1,847 (7.0)	365 (1.4)

자료: 201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2011)

- 주: 1. 농업종사가구원은 15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 농가 인구 수와는 상이함  
 2. 식량작물에는 서류, 두류를 포함하고, 특용작물에는 약용, 버섯을 포함함. 또한 화초 및 관상작물은 화훼에 포함함.  
 3. 바탕색 부분은 논벼를 제외하고 비율이 가장 높은 종사형태를 나타냄.

다음은 2016년 현재 충남의 4-H회원의 종사형태이다. 4-H회원의 종사형태는 충남의 종사형태와는 달리 논벼보다 타 작물에 대한 재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축산의 비율(30.1%)이 가장 높으며, 이 밖에도 채소(20.8%), 특용(13.3%)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상기의 품목에 젊은 농가의 참여가 높은 것은 논벼, 식량작물은 타 작물에 비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경영비가 적게 드는 반면, 결과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특용, 화훼, 축산 등에서는 평균 이상의 재배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설비 등 경영비와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군별로 살펴보면(계룡시를 제외함), 각 시군별로 재배 비율이 높은 항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축산은 공주시(34.6%), 당진시(52.9%), 보령시(47.5%), 아산시(55.6%), 예산군(38.1%), 천안시(27.0%), 홍성군(69.6%)에서, 논벼는 서산시(52.3%), 서천군(52.5%)에서, 채소는 논산시(57.9%), 부여군(32.4%), 청양군(30.0%)에서 특용재배는 금산군(90.1%)에서 비율이 각각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충청남도 4-H회원의 종사형태

단위 : %

시군	논벼	식량	채소	특용	과수	화훼	축산	기타
충남	22.8	2.2	20.8	13.3	2.2	5.3	<b>30.1</b>	3.3
공주시	19.2	0.0	25.0	7.7	0.0	13.5	<b>34.6</b>	0.0
금산군	0.0	0.0	1.4	<b>90.1</b>	0.0	0.0	8.5	0.0
논산시	14.3	2.3	<b>57.9</b>	2.3	0.8	8.3	14.3	0.0
당진시	23.5	11.8	2.9	5.9	0.0	2.9	<b>52.9</b>	0.0
보령시	26.2	0.0	1.6	8.2	1.6	0.0	<b>47.5</b>	14.8
부여군	21.6	0.0	<b>32.4</b>	5.4	4.1	5.4	29.7	1.4
서산시	<b>52.3</b>	2.3	9.1	4.5	0.0	2.3	29.5	0.0
서천군	<b>52.5</b>	1.6	16.4	4.9	1.6	1.6	21.3	0.0
아산시	22.2	7.4	3.7	0.0	3.7	7.4	<b>55.6</b>	0.0
예산군	23.8	0.0	7.1	11.9	2.4	16.7	<b>38.1</b>	0.0
천안시	21.6	5.4	18.9	10.8	2.7	13.5	<b>27.0</b>	0.0
청양군	12.5	0.0	<b>30.0</b>	12.5	0.0	5.0	17.5	22.5
태안군	<b>38.9</b>	0.0	5.6	0.0	22.2	0.0	16.7	16.7
홍성군	14.3	7.1	7.1	1.8	0.0	0.0	<b>69.6</b>	0.0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주: 1. 조사 대상자의 자유기입 방식으로 충남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재분류하였고 이하 자료 역시 동일함

논벼: 답작, 논농사, 벼, 벼농사, 수도작, 수도, 경종

식량: 고구마, 감자, 콩

채소: 고추, 과채, 농지채소, 단호박, 대파, 딸기, 메론, 방울토마토, 상추, 수박, 토마토, 옥수수, 호박, 쪽파, 깻잎, 시금치, 원예, 달래 오이 시설 시설채소(수박), 시설(채소), 산나물

특용: 인삼, 특용작, 특작, 생강, 녹차, 들깨, 약초, 오미자, 여주, 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 표고버섯, 시설(표고버섯), 맥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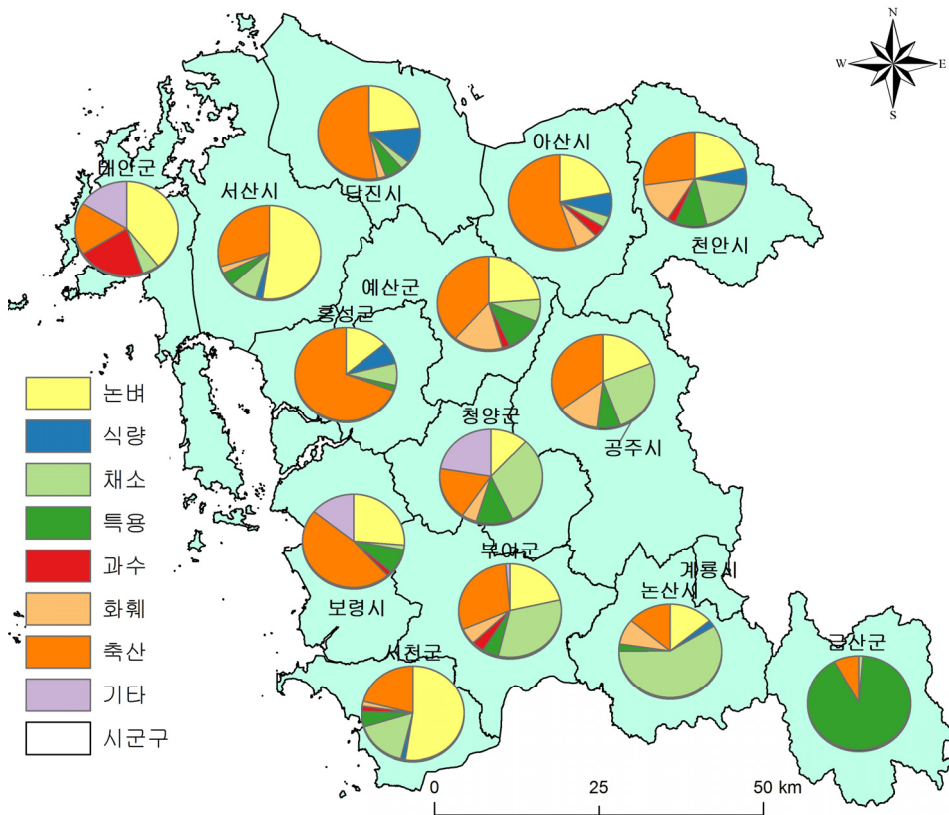
화훼: 화훼, 분재

과수: 감, 밤, 복숭아, 포도, 배, 자두, 사과, 호두, 아로니아, 블루베리

축산: 한우, 양돈, 양계, 낙농, 기타축산

기타: 농기계운영, 모판유통, 유통, 체험, 김치, 농산가공 등

2. 바탕색 부분은 각 시군별로 비율이 가장 높은 종사형태를 나타냄



[그림 13] 2016년 4-H회원의 시군별 종사형태별 재배 비율

2010년 충남과 2016년 4-H회원의 논벼, 식량 재배 비율을 비교해보면, 논벼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 전체 비율에 비해 4-H회원의 재배 비율이 평균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식량의 경우 당진시와 아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평균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당진시의 경우 평균 6.4%보다 약 2배가량 높은 11.8%가 논벼를 재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산군, 논산시, 청양군의 경우 논벼 및 식량 재배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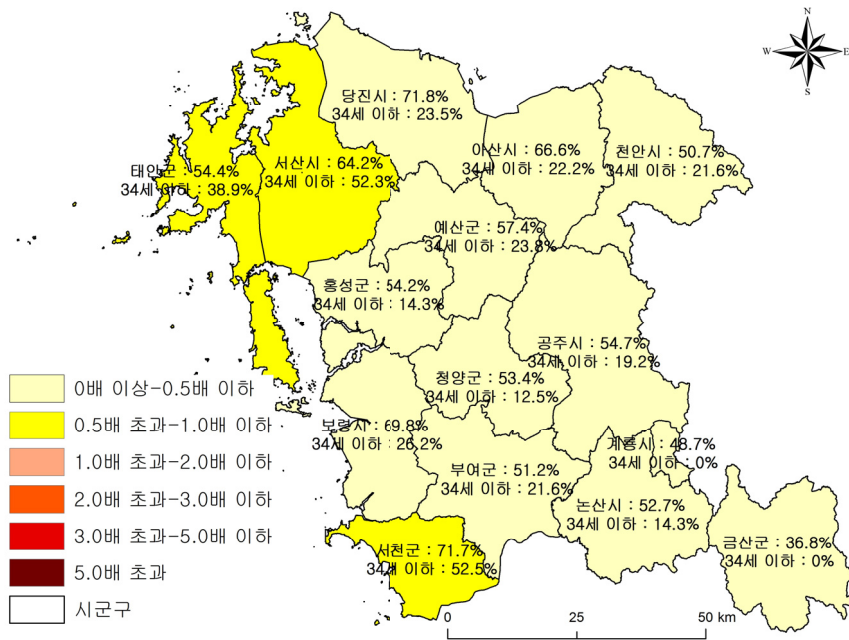
〈표 28〉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논벼, 식량)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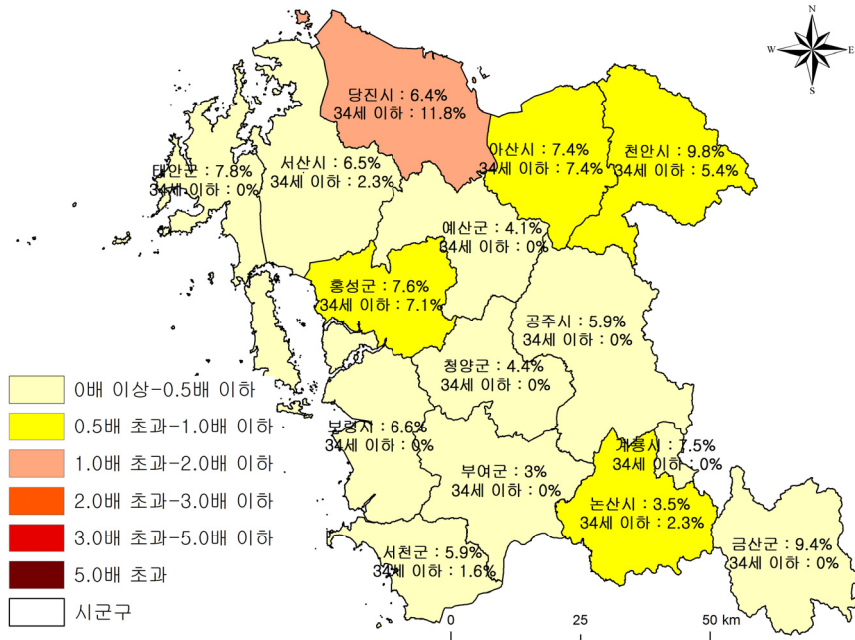
시군	2010년 시군별 전체 농업종사가구원(A)		2016년 4-H회원(B)		2010년 대비 평균 비교		2010년 대비 2016년(B/A)	
	논벼	식량	논벼	식량	논벼	식량	논벼	식량
계룡시	48.7	7.5	-	-	-	-	0.0	0.0
공주시	54.7	5.9	19.2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4	0.0
금산군	36.8	9.4	0.0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0	0.0
논산시	52.7	3.5	14.3	2.3	평균이하	평균이하	0.3	0.6
당진시	71.8	6.4	23.5	11.8	평균이하	평균이상	0.3	1.8
보령시	69.8	6.6	26.2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4	0.0
부여군	51.2	3.0	21.6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4	0.0
서산시	64.2	6.5	52.3	2.3	평균이하	평균이하	0.8	0.3
서천군	71.7	5.9	52.5	1.6	평균이하	평균이하	0.7	0.3
아산시	66.6	7.4	22.2	7.4	평균이하	평균	0.3	1.0
예산군	57.4	4.1	23.8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4	0.0
천안시	50.7	9.8	21.6	5.4	평균이하	평균이하	0.4	0.6
청양군	53.4	4.4	12.5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2	0.0
태안군	54.4	7.8	38.9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7	0.0
홍성군	54.2	7.6	14.3	7.1	평균이하	평균이하	0.3	0.9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그림 14]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농버)



[그림 15]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식량)

2010년 충남과 2016년 4-H회원의 채소, 특용 재배 비율을 비교해보면, 4-H를 기준으로 채소는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시, 청양군에서 전체 비율에 비해 평균 이상으로 재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논산시의 경우 4-H회원의 50% 이상(57.9%)이 채소 재배를 하고 시군별 전체에 비해 2배 이상 채소 재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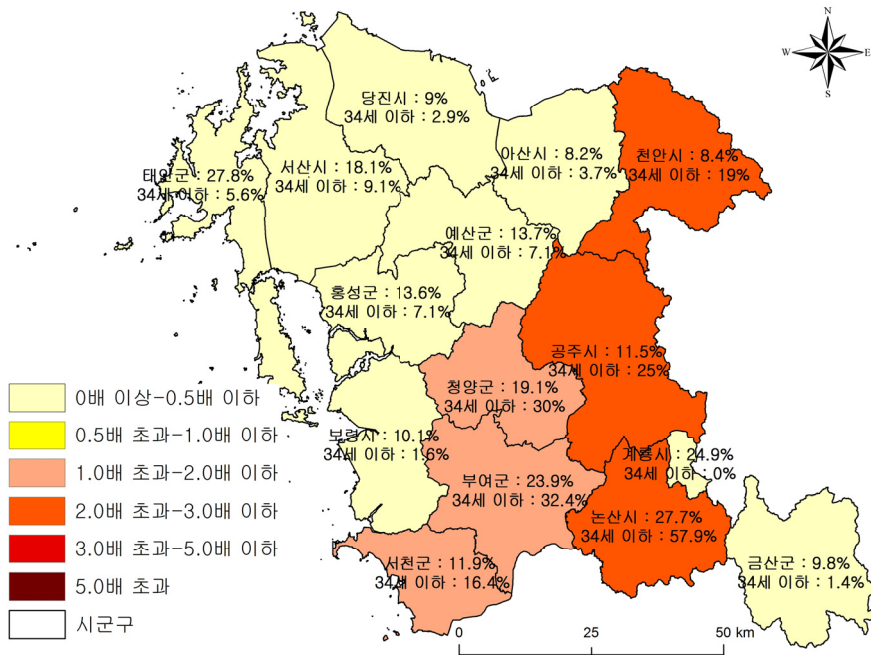
특용작물의 경우 논산시, 부여군, 아산시, 태안군, 홍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평균 이상으로 재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인삼의 주산지인 금산에서는 특용작물 재배 비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특용작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경우 특용작물 재배 비율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와 예산군도 3배 이상 특용작물의 재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채소, 특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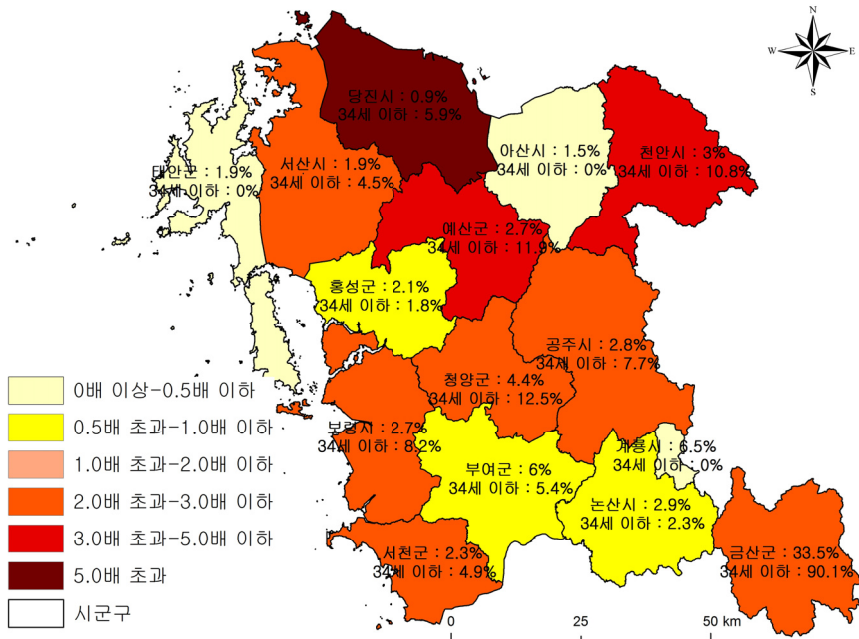
시군	2010년 시군별 전체 농업종사가구원(A)		2016년 4-H회원(B)		2010년 대비 평균 비교		2010년 대비 2016년(B/A)	
	채소	특용	채소	특용	채소	특용	채소	특용
계룡시	24.9%	6.5%	-	-	-	-	0.0	0.0
공주시	11.5%	2.8%	25.0%	7.7%	평균이상	평균이상	2.2	2.7
금산군	9.8%	33.5%	1.4%	90.1%	평균이하	평균이상	0.1	2.7
논산시	27.7%	2.9%	57.9%	2.3%	평균이상	평균이하	2.1	0.8
당진시	9.0%	0.9%	2.9%	5.9%	평균이하	평균이상	0.3	6.5
보령시	10.1%	2.7%	1.6%	8.2%	평균이하	평균이상	0.2	3.0
부여군	23.9%	6.0%	32.4%	5.4%	평균이상	평균이하	1.4	0.9
서산시	18.1%	1.9%	9.1%	4.5%	평균이하	평균이상	0.5	2.4
서천군	11.9%	2.3%	16.4%	4.9%	평균이상	평균이상	1.4	2.1
아산시	8.2%	1.5%	3.7%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5	0.0
예산군	13.7%	2.7%	7.1%	11.9%	평균이하	평균이상	0.5	4.4
천안시	8.4%	3.0%	18.9%	10.8%	평균이상	평균이상	2.3	3.6
청양군	19.1%	4.4%	30.0%	12.5%	평균이상	평균이상	1.6	2.8
태안군	27.8%	1.9%	5.6%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2	0.0
홍성군	13.6%	2.1%	7.1%	1.8%	평균이하	평균이하	0.5	0.9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그림 16]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채소)



[그림 17]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특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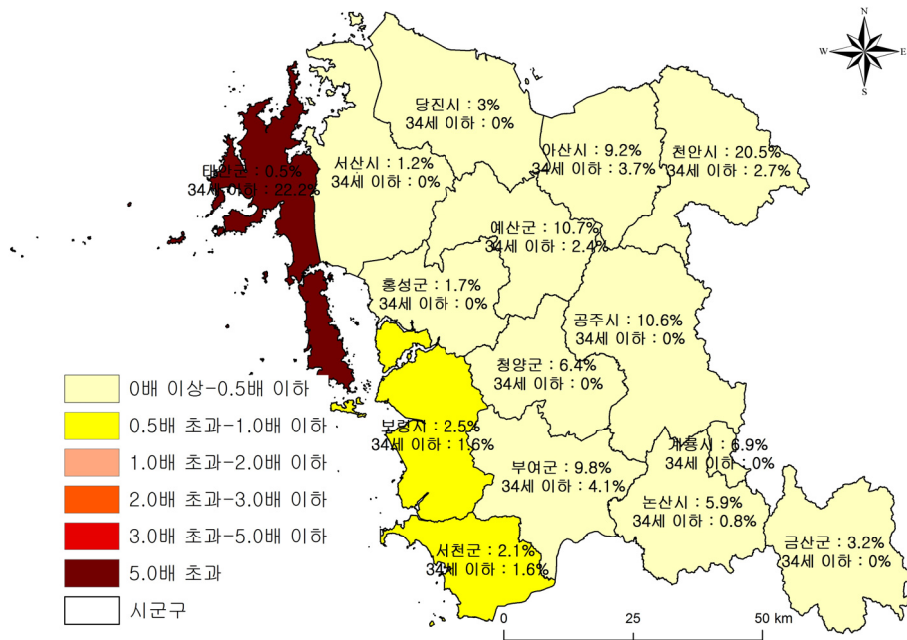
2010년 충남과 2016년 4-H회원의 과수, 화훼 재배 비율을 비교해보면, 태안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하로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의 경우 과수 재배 비율이 군 전체 비율보다 약 4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훼의 경우 금산군,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과 같이 4-H회원이 재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군 (16.7%), 공주시 및 천안시(각각 13.5%)가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상으로 재배하는 4-H회원은 대부분 시군별 전체 비율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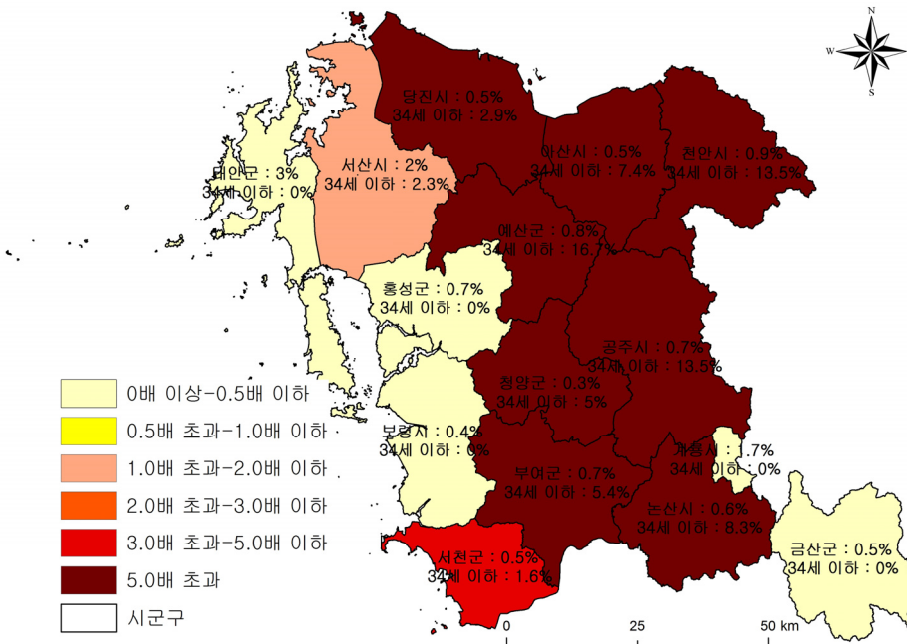
〈표 30〉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과수, 화훼)

시군	2010년 시군별 전체 농업종사가구원(A)		2016년 4-H회원(B)		2010년 대비 평균 비교		2010년 대비 2016년(B/A)	
	과수	화훼	과수	화훼	과수	화훼	과수	화훼
계룡시	6.9%	1.7%	-	-	-	-	0.0	0.0
공주시	10.6%	0.7%	0.0%	13.5%	평균이하	평균이상	0.0	19.2
금산군	3.2%	0.5%	0.0%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0	0.0
논산시	5.9%	0.6%	0.8%	8.3%	평균이하	평균이상	0.1	13.8
당진시	3.0%	0.5%	0.0%	2.9%	평균이하	평균이상	0.0	5.9
보령시	2.5%	0.4%	1.6%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7	0.0
부여군	9.8%	0.7%	4.1%	5.4%	평균이하	평균이상	0.4	7.7
서산시	1.2%	2.0%	0.0%	2.3%	평균이하	평균이상	0.0	1.1
서천군	2.1%	0.5%	1.6%	1.6%	평균이하	평균이상	0.8	3.3
아산시	9.2%	0.5%	3.7%	7.4%	평균이하	평균이상	0.4	14.8
예산군	10.7%	0.8%	2.4%	16.7%	평균이하	평균이상	0.2	20.8
천안시	20.5%	0.9%	2.7%	13.5%	평균이하	평균이상	0.1	15.0
청양군	6.4%	0.3%	0.0%	5.0%	평균이하	평균이상	0.0	16.7
태안군	0.5%	3.0%	22.2%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44.4	0.0
홍성군	1.7%	0.7%	0.0%	0.0%	평균이하	평균이하	0.0	0.0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그림 18]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과수)



[그림 19] 시군별 종사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화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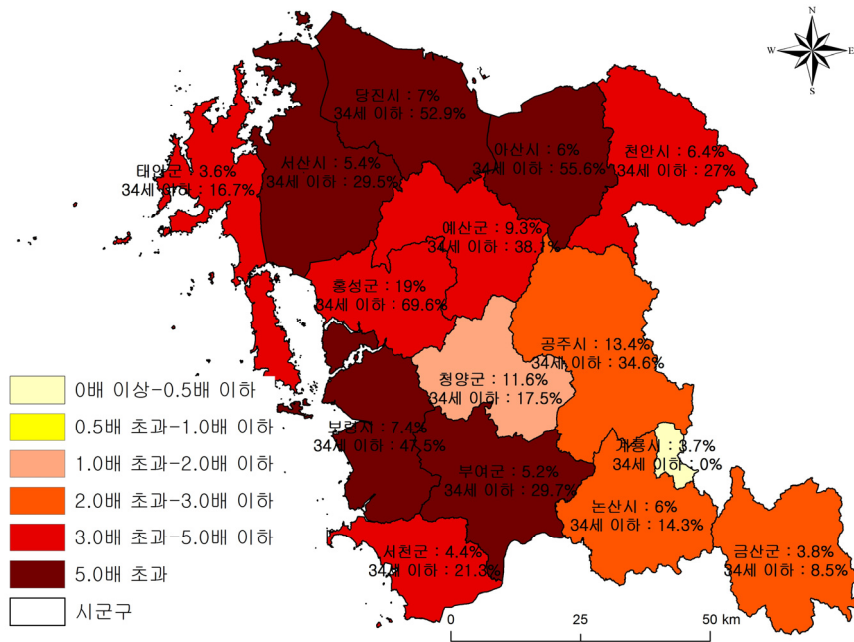
2010년 충남과 2016년 4-H회원의 축산 및 기타 작물의 종사형태 비율을 비교해보면, 축산의 경우 4-H회원이 없는 계룡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시군별 전체 비율에 비해 평균 이상으로 사육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홍성군(69.6%), 아산시(55.6%), 당진시(52.9%)의 경우 4-H회원의 절반 이상이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부여군의 경우 4-H회원의 축산 사육비율이 시군별 전체 농가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작물의 경우 청양군(22.5%), 태안군(16.7%), 보령시(14.8%), 부여군(1.4%)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평균 이하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시군은 4-H회원의 기타 작물 재배 비율이 시군별 전체 비율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에서는 기존의 작물과는 다르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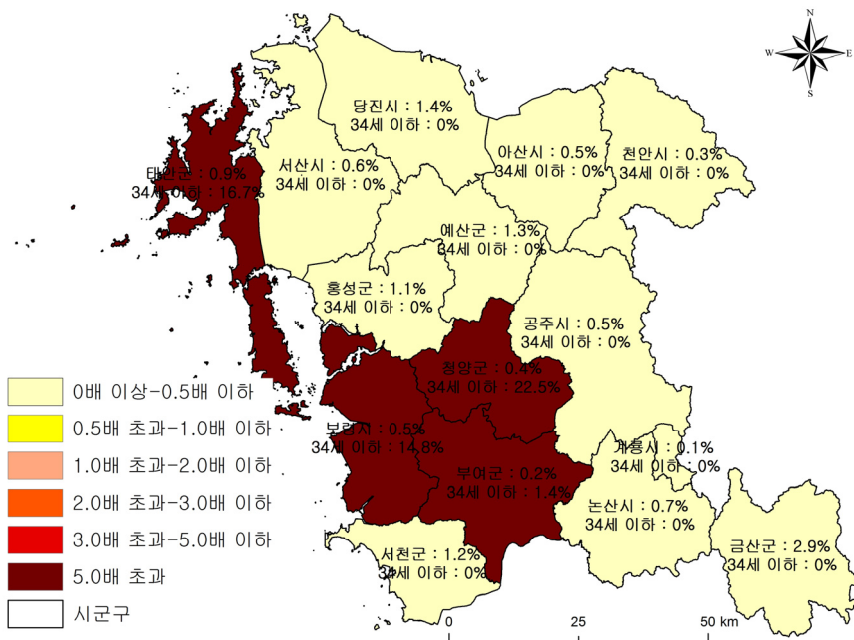
〈표 31〉 충남 시군별 전체 종사가구원과 4-H회원의 종사형태 비율(축산, 기타)

시군	2010년 시군별 전체 농업종사가구원(A)		2016년 4-H회원(B)		2010년 대비 평균 비교		2010년 대비 2016년(B/A)	
	축산	기타	축산	기타	축산	기타	축산	기타
계룡시	3.7%	0.1%	-	-	-	-	0.0	0.0
공주시	13.4%	0.5%	34.6%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2.6	0.0
금산군	3.8%	2.9%	8.5%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2.2	0.0
논산시	6.0%	0.7%	14.3%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2.4	0.0
당진시	7.0%	1.4%	52.9%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7.6	0.0
보령시	7.4%	0.5%	47.5%	14.8%	평균이상	평균이상	6.4	29.5
부여군	5.2%	0.2%	29.7%	1.4%	평균이상	평균이상	5.7	6.8
서산시	5.4%	0.6%	29.5%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5.5	0.0
서천군	4.4%	1.2%	21.3%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4.8	0.0
아산시	6.0%	0.5%	55.6%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9.3	0.0
예산군	9.3%	1.3%	38.1%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4.1	0.0
천안시	6.4%	0.3%	27.0%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4.2	0.0
청양군	11.6%	0.4%	17.5%	22.5%	평균이상	평균이상	1.5	56.3
태안군	3.6%	0.9%	16.7%	16.7%	평균이상	평균이상	4.6	18.5
홍성군	19.0%	1.1%	69.6%	0.0%	평균이상	평균이하	3.7	0.0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각 년도)



[그림 20] 시군별 종사자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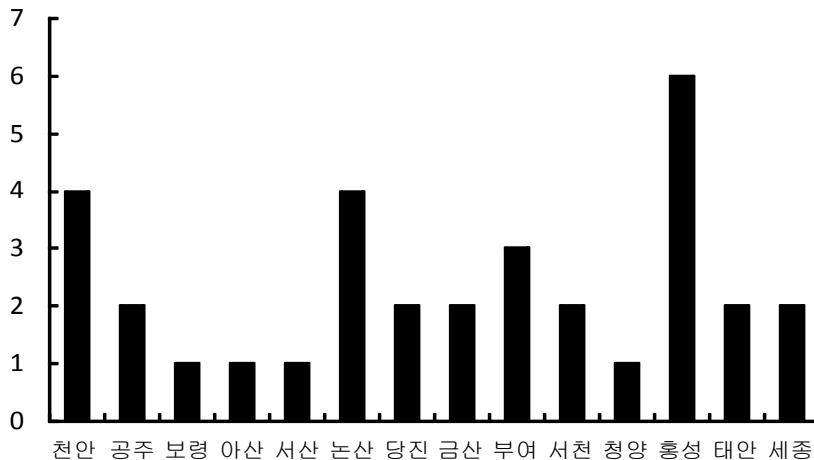


[그림 21] 시군별 종사자가구원 및 4-H회원의 종사형태별 분포도(기타)

## 4. 충남의 만 39세 이하 귀농인 농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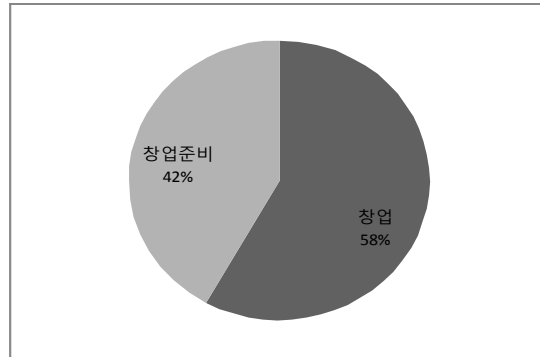
### 1) 지역 및 유형별 결과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인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31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여 만 39세 이하의 귀농인 농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젊은 귀농인들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홍성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천안, 논산이 4명, 부여가 3명, 공주, 당진, 금산, 서천, 태안이 2명씩, 보령, 아산, 서산, 청양은 각 1명씩이었다(그림22).



[그림 22]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충남 대상자 수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에서 심사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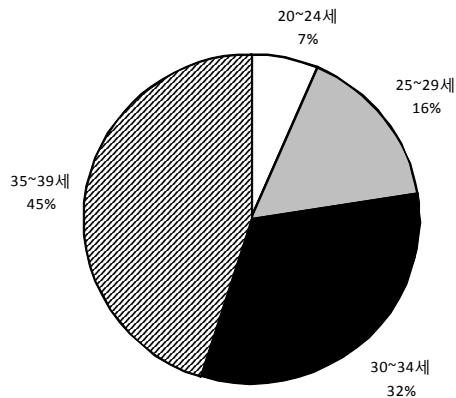
사업대상자의 유형별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이 전체 31명 가운데 58%(18명)를 차지했고 창업 준비가 42%(13명)로 나타나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는 이미 창업한 자에 대한 지원과 창업준비를 위한 지원이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그림23).



[그림 23] 충남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유형

## 2) 연령별 결과

충남지역의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대상자의 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가 45%(14명)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만 30세 이상 34세 이하가 32%(10명), 만 25세 이상 29세 이하가 16%(5명), 마지막으로 만 20세 이상 24세 이하가 7%(2명)를 차지하였다(그림24). 이는 비교적 나이가 높은 귀농인들이 창업을 목표로 한 준비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청년층 가운데서도 연령별 지원이 필요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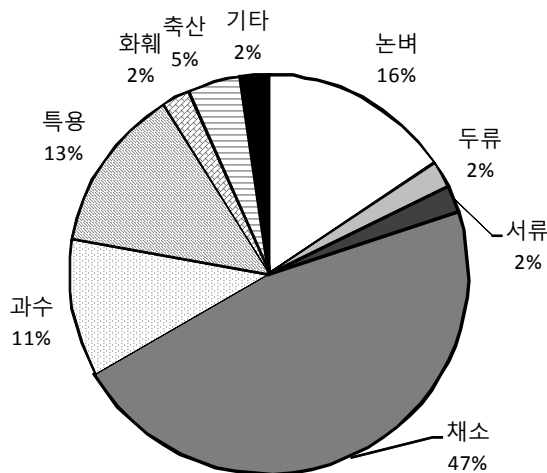


[그림 24]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연령별 분포

### 3) 종사형태별 결과

사업대상자의 재배작목별 결과(복수 선택 가능)를 살펴보면 채소가 절반에 가까운 48%(21건)로 가장 많았고, 논벼가 다음으로 16%(7건), 인삼을 포함한 특용이 14%(6건), 과수가 11%(5건), 축산이 5%(2건), 화훼 및 기타 작목이 각각 1%(1건)로 나타나, 채소재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25). 채소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유기재배 채소’라고 기입한 대상자가 2명이었고 ‘다품종 소량’이라고 기입한 대상자도 2명이었다. 창농의 단계부터 유기농업과 다품종 소량이라는 구체적인 농법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대상자도 눈에 띈다. 또한 재배뿐 아니라 체험 농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상자도 3명에 달했다.

이들 대상자가 지원금을 가지고 어떠한 영농창농의 발전과정을 거치게 될지 주목된다. 향후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sup>9)</sup>.



[그림 25]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재배작목별 분포

9) 2016년 4월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대상자가 결정되었음에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2016년 6월 18일 현재, 아직 농축산식품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5. 시사점

본 장에서는 우선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충남의 농가 및 농가 인구의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농가 인구 감소와 마찬가지로 청년농업인 인구 역시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었다. 2005년 대비 농가 수의 증감률은 충남 전체(-15.8) 비율에 비해 만 39세 이하(-68.8)가 약 4.4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유출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농업종사가구원의 종사형태별로 살펴보면 충남 전체의 비율은 논벼가 58%로 가장 높은 반면 청년농업인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후계농업인 중심의 4-H회원은 논벼보다 타 작물에 대한 재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축산의 비율(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년농업인 가운데 귀농인은 후계농업인의 종사형태와도 다르게 채소(48.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농업인의 지원 정책은 유형별로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듯 축산과 같은 큰 규모와 인프라 기반의 농업을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채소와 같이 소규모에서도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경우에 각각 어떠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할지 보다 심층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유형별 청년농업인의 사례 인터뷰 조사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방향을 짚어보도록 한다.



## 제5장 청년농업인 정책 개선을 위한 사례 조사

### 1. 개요

여기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지원 현황과 청년농업인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심층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2절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청년농업인의 경우에도 어떠한 농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농업에 대한 목적과 농업에 필요한 기반 및 여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청년농업인의 유형별 사례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틀을 잡아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으로는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를 각각 2명씩으로 하였다. 후계농업인의 경우 금산의 인삼재배와 홍성의 논벼, 축산, 그 외 채소재배로 지역과 종사형태를 달리 하는 한편 4-H에 가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선정하였다. 귀농인의 경우는 논산의 딸기 재배로 지역과 품목은 같으나 연령 제한으로 인해 4-H에 가입한 자와 아닌 자로 선정하였다. 둘은 귀농 동기이기도 하다. 귀농인이 아닌 자는 같은 홍성의 청년으로 한명은 귀농을 목표로 하는 자와 다른 한명은 농업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귀촌에 가까운 청년으로 하였다<sup>10)</sup>.

3절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단체의 사례로 전국 단위와 지역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전국 단위로는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로는 같은 홍성 지역에서 청년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지원하며 육성의 역할도 하고 있는 풀무학교 전공부와 젊은 협업농장을 사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 4절에서는 시사점을 짚어 본다.

---

10) 이들 둘은 2015년 하반기 전략과제인 귀농귀촌 연구 과정에서 이미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당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인터뷰를 통해 재정리하였다.

## 2. 청년농업인 사례

### 1) 후계농업인 A씨(33세)

지역: 금산군 금성면

종사형태: 특용 인삼

면적: 전체 면적 1만평, 인삼 6천 평, 예정지 관리지 4천 평

시작: 2013년

4-H여부: 가입하지 않음

#### 농업의 계기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대한 마음은 쪽 품고 살아오다 10년 전부터 농업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대학에 재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당시 좋았다고 했던 것이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은 늘 힘들다고 말해왔지만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농업은 비록 아버지가 일군 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기존의 관행 농업과는 다른 비전이 있었다. 5년간 농사를 짓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한 끝에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기존에 유통을 위해 가지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을 손보기 시작했고 인삼에 대해 배우기 위해 많은 문헌들과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제대로 익혔다고 생각하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는 여전히 인삼 재배 현장에서는 더 훌륭하다고 느끼고 있고 자신은 유통망과 인삼의 기능성을 강화하는 공부에 집중하여 아버지와의 사이에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 힘든 점

기반 없이 내려오는 후계자는 없다. 때문에 농사 기반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아버지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힘들었다. 즉 인삼에 대한 아버지의 기존 관념에 대해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면에서 갈등이 많았다. 실제로 짐을 싸기를 다섯 번에 이른다. 하지만 결국은 결과와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 때에 비해 2천 평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 새롭게 신축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 중이다. 소득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 3~5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개인사업자에서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에는 정규직 1명과 비정규 일용직을 3명 쓰고 있다. 아버지는 현역에서는 물러나 든든한 지원자로 바뀌었다.

현재 6차산업화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GAP 인삼 유통과 식물공장을 고려하고 있다. GAP 같은 경우는 금산군에서도 소수만이 재배 중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보다 먼 장래 꿈으로는 마을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곳에서 체험농장과 캠핑까지 가능한 농장을 만드는 일이다. 체험농장에서는 인삼과 홍삼, 새싹 인삼 재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웰빙 식단으로 식당도 마련하여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 지역 안에서의 관계

사실 후계자들이 겪는 가장 힘들 일은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었다. 지금도 지역 어르신들 가운데는 ‘저 집 아들이 도시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곳이라 적응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버지가 힘들게 닦아 놓은 기반도 있어서 농사 자체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이런 시선들은 여전히 힘들다. 고향이기도 한 이 지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커서 우선은 GAP 인삼 유통으로 어렵게 농사지은 주위 농가들의 인삼 값을 조금이라도 더 쳐주고 싶은 욕심이 크다. 그것이 지역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우선은 후계농업인이라 농지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농지 임차 문제는 당장에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농사를 짓고 싶지만 윗세대의 기반이 따라주지 못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후계농업인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귀농인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농사짓고 싶은 이들에게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농지 임차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사실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

들의 경우에도 어쩌면 농사지를 기반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후계농업인에게도 멘토는 필요하다. 아버지나 지역의 어르신들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알려주는 멘토의 부재가 아쉽다. 더불어 이러한 멘토와의 모임에 대해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이 모여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 2) 후계농업인 B씨(34세)

지역: 홍성군 홍동면

종사형태: 논벼, 축산, 각종 채소

면적: 논 1만 8천 평, 밭 2천 평, 축산 한우 30두

시작: 2009년

4-H여부: 가입함

### 농사의 계기

농사를 시작한 계기는 딱히 없고,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농업으로 생각하였다. 현재 쌀농사의 경우 직거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30~40명 정도 고객이 있다. 밭농사는 감자, 당근, 생강 등을 경작하고 있다. 밭농사는 쌀농사에 비해 힘들기도 하고 판매량이나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축산의 경우 적정규모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의 경우 규모를 늘린다면 얼마든지 수입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나기에 많이 늘리지 않고 있다.

### 힘든 점

농업 자체가 몸이 힘든 직업이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농업이 가진 희소성으로 미래에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농업에 임하고 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연계되어 있다. 쌀 같은 경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는 너무 급속도로 소비가 줄어들어 어려움이 많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문제보다 내부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쌀을 먹지 않게 되면 결국 다른 농산물도 같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이 온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쌀 직거래를 하고 있지만 물량이 많이 남아 처음으로 가격을 낮춰 납품하였다. 방송에서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의 영향 등으로 외식을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것도 소비 감소의 한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쌀농사에 비해 아직까지 축산 분야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축산의 비율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5년 안에 지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절반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고령농의 경우 위탁 형식으로 맡기려 해도 맡아서 할 수 있는 농민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후계농이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후계농 역시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외부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농들은 현재 흥동에서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유기농을 꺼려하고 생산량이 많은 관행농을 선호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악순환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농사만 전업으로 하는 젊은 귀농층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소수인 젊은 사람들이 많은 면적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농사를 지으면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젊은 전업농이 들어오려 한다면 마을에서 얼마든지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지원받은 정책

현재 4-H에 소속되어 있고 단체를 통해 교육,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지원받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융자가 아닌 50% 보조사업으로 4,500만 원(총액 9,000만 원)을 받아서 축사 보수에 사용하였다. 또한 3년 거치 7년 상환 방식으로 9천만 원 융자를 받기도 했다(이율 2%). 이 자금으로는 하우스 땅을 구입하였다. 융자 또한 담보가 없이는 빌릴 수 없기 때문에 후계농이 진입하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인의 경우 운 좋게 받았지만 결국 있는 사람밖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문제가 있다.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계획에 끼워 맞추다 보면 위험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맞는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농가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영농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술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따로 수강한 적은 없다. 경험을 통해 배워가며 영농을 하고 있다. 목표가 확실히 있다면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된다. 만약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특수작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시작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지 임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젊은 농부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 정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주로 이미 농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 사업을 늘리는 혜택만 주고 있다. 정보의 획득이 빠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더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현재 농촌으로 인구유입은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귀농보다는 귀촌인구가 많은 것 같다. 흥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육적, 환경적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촌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귀농이다. 농사를 짓는 과정을 통해 농촌생활이 공유되고 공감대가 생기게 마련인데 전원주택 생활만 하는 귀촌생활로는 큰 의미가 없다.

농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선 농사를 지어야 한다. 기존의 농민들과 귀촌인들 사이에는 문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해결하려 해도 농업이 처한 환경이 급하게 변화하고 있어 해결책이 상황 변화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짧게나마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농업을 일반 직업처럼 생각하고 농촌에 들어오면 안되고 농촌에서의 삶을 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농촌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농촌에 들어온다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지치지 않고 농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한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농사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데 기인한 것으로 스스로 농촌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실 지역 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자금 지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의 2세가 경작을 물려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세들은 부모님의 농사짓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 않고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오기를 꺼려한다. 어쨌든 2세들을 귀향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의료 및 복지 측면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시골은 낙후되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낙후되지 않았다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 중인 멘토제도, 인턴제도 등의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 후계농보다는 귀농하는 젊은 층과 소규모 후계농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홍성 같은 경우 일반 후계농은 축산 쪽이 많이 있고 규모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4-H의 경우만 하더라도 축산 쪽 후계농이 많은데 영농정착시범사업 등 많은 지원이 사업을 늘리는데는 유용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년농업이라고 하면 고부가가치 농업을 주로 이야기 하는데 이런 쪽 지원보다는 소농 육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귀농인 C씨(39세)

지역: 논산시

종사형태: 딸기, 방울토마토

면적: 전체 면적 하우스 8동(딸기 2동, 방울토마토 3동)

시작: 2014년

4-H여부: 해당사항 없음

#### 농업의 계기

2014년도 4월에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일산에서 주말농장을 먼저 시작했다. 사회생활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40대 중반의 나이는 일적으로도 힘들면서 퇴직도 빨리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해서 무언가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아버지의 농업에 대한 마인드도 귀농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본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셨던 시아버지는 힘들지만 방향성을 잘 잡고 노력하면 예전과 다르게 장래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셨다. 주말농장을 2년을 하고 나니 땅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게 저희 부부 모두 부모님이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셔서 뭘 심어서 나오고 했을 때 그걸 내가 기뻐할까? 뿌듯할까? 내가 행복할까? 행복해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6개월 정도 텃밭을 일구며 땅에서 놀고 농산물을 캐고 심어 보기도 했다. 반대하던 남편과 상의 후에 일단은 겪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제일 처음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친선대사로 선발되어 농촌 체험을 한 경험이었다. 그 곳에서 체험농장을 방문하며 관광 자원으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과 체험객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귀농을 하게 된다면 체험 분야 쪽에서 농촌체험지도사 수료증 등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귀농한지 이제 3년차로 주위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준비하는데만 6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서울에서 지낼 적에 주말마다 박람회 방문하면서 2~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다녀보니 선호하는 지역의 변화 등 귀농에도 트렌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충남은 귀농 지역에 대한 홍보도 적었고 논산은 귀농 박람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시절이었다. 하지만 딸기라는 작목에 매력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논산을 고려하게 되었고 마침 귀농 박람회에 와 있던 서산 부스에서 딸기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서 논산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 논산에서의 정착과정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고향 쪽을 권유받았으나 논산에 대한 매력으로 정착지를 찾고 있던 중에 하우스에서 토마토를 농사짓는 농장주가 임대를 하게 되어 기존에 짓고 있던 토마토로 농사를 시작하였다. 실은 교육 과정 중에 ‘가야곡’이라는 곳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동네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하우스 농사를 그만 두려던 농장주와 만나게 된 것이었다.



기존의 시설에 애초부터 체험농장을 마음에 두고 있던 터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하우스 한편에 쉼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주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단순히 토마토나 딸기 따기 체험을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 방학이 되면 시골에 놀러가던 추억이 힐링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도시 아이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이것이 농업이 있는 농촌이 해주어야 하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딸기 체험 농장을 논산에서 시작하는 일은 숙박 시설이나 관광할 곳이 비교적 많은 경기도 양평이나 일산 쪽과는 처해있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 최근에는 근처에 펜션을 하는 동네 분들과 상담해서 숙박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고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설화나 전설 등과 연결하여 스토리텔링이 있는 마을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동네에 농장의 색깔을 입히고 이야기를 덮어 나가는 일을 숙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주위에 관련된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도 또 하나의 고민이다. 어떻게 뭉쳐야 하고 무엇을 분배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지 구체적인 것이 또렷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센터에 소속된 협의회 임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만나는 분들과의 교류도 계속 되고 있다. 블로그도 활용하고 있으며 서로 도와가면서 소통하고 있는 중이다.

딸기 작목반은 13명이고 토마토는 21명이 소속되어 있다. 귀농자의 비율은 딸기는 반 정도가, 토마토는 5명 정도가 된다. 딸기 작목반의 경우는 멘토 멘티 제도를 통해 알게 된 멘토가 멤버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작목반 멤버가 되었다. 생산에서부터 박스에 포장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다 배우는 것이 가능했다. 딸기는 작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침 멘토 멘티 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기별 작업 과정 등을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센터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해인 올해 딸기 농사는 나쁘지 않았다. 초보였지만 좀 더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수확하는 바람에 작목반에서 가장 늦게까지 출하했다.

논산 시내에 와서 정착지를 탐색한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일용직 바이트도 했었는데 전제 조건은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정했다. 하우스 짓는 것이든 농산물 수확이든 농사를 지으려면 다양한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일들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다양한 작물은 물론 수익성 창출 방법을 공부해 가면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성장하는 시간이었다.

## 체험농장

아직 체험농장으로서 정식으로 스타트한 것은 아니다. 1~2회 시범적으로 시작했던 것이 SNS 상에서 소개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체험이 가능한 치유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생각한 대상은 장애인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농장을 체험하려면 자연스레 고설재배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설 딸기를 준비하면서 시설 면에서도 불편함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하던 가운데 특수 아동 선생이던 친언니에게서 화장실 문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듣게 되어 화장실이 완공되는 시기를 오픈 시기로 잡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중국에서 학생들 방문에 체험 농장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게 되어 교류 센터의 주선으로 마침 딸기가 늦게까지 남아있던 이곳에서 체험 농장을 실시하게 되면서 주위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한 계기로 대전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대상도 수상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쌓여가면서 색다른 농장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 힘든 점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된 귀농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소통의 부재이다. 하우스를 새로 짓게 되든 고랑 파는 작업을 하게 되든 귀농인들에게는 낯선 일이다. 이에 업자에게 일을 부탁하게 되는데,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 농업에 대한 시설도, 효율적인 라인도 잘 몰라서 제대로 된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았다. 여러 번 속기도 했다. 연고지도 없어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귀농 후배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쳐 주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다.

## 지원받은 정책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하우스를 지으면서 처음으로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를 받게 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자부담으로 마련했다. 멘토 멘티제에 선정되어 도움을 받았고 작년에는 강소농 교육을 마쳤다. 시 사업으로는 경영 창업농 사업으로 자부담 30%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체험 농장을 위한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기자재 명목으로 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원래 있던 농지는 매매를 통해 구입하였고 체험 농장을 위한 휴식공간 부분은 15년간 임대

한 상태이다. 사실 귀농인이 제대로 된 땅을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매매도 임대도 힘들지만 실제로 정말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인지 아닌지는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다.

농업기술센터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부분을 담당하는 것도 힘들 것 같다. 귀농인에게서는 작물 고르는 것에서 땅 고르기는 물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 땅을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은행이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정보 등 관련 사항들이 연계되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 강소농 교육 같은 경우는 경영적인 면에서 농장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추구하는 방법은 물론 회계, 경영 등에 대한 흐름을 알려주고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 마케팅과 직거래 방법에 대한 분야도 늘어나고 있고 농촌체험협의 회에서는 분기별로 체험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있다. 이제는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나 게시판의 활용 등 농가들이 기본을 가지고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팜파티와 팜바리스타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이다. 더불어 2030 청년층도 정착에 힘들기는 하지만 연령대와 상관없는 지원책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4) 귀농인 D씨(34세)

지역: 논산시

종사형태: 딸기

면적: 고설 5동(1,500평), 육묘 3동

시작: 2014년

4-H여부: 가입함

#### 농업의 계기

2년 전에 귀농하게 되었다. 아내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결혼을 결심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두고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은 똑같은 생활의

연장선상으로 4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다시 장래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고민을 다시 하는 시기를 맞지 않고 처음부터 살 수는 없을까,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고민한 끝에 창업밖에 없었다. 창업 전반에 대해 알아보다 뚜렷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80% 이상이 3~5년 안에 폐업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농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첫째 은퇴가 없다. 노인분들도 충분히 체력이 되는 한, 여건이 되는 한,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잘 산다. 둘째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삶을 공유할 수 있다. 문화혜택, 소위 말하는 극장이나 쇼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저희 매일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굳이 찾아가면 된다. 그래서 귀농을 결혼을 하자마자 내려왔어요. 처음엔 농사에 농자도 모르고 시작도 안하지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딸기로는 결정을 했었죠.*

물론 시골에는 연고도 없었고 딸기에 대한 지식도 없었지만 어느 지역에서나 할 수 있는 작목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가 나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는 어려운 작물을 선택하고 싶었다. 농업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농산물은 잘 지어놓아도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FTA나 자유 경제 시장 앞에서 대체 과일의 진입은 너무 쉬워진 게 현실이다. 오렌지도 관세가 풀려서 동네에서 서른 개에 만 원에 팔리고 있다. 소비자 수요도 따져보면서 수출도 어렵지만 수입이 불가능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작목을 바꾸어야 하는 전환점이 없을 것 같은 작목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딸기였다.

논산시는 딸기 특구로서 딸기 작목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인 정립화 된 매뉴얼이 있다. 시기 별로 큰 틀만 놓치지 않으면 고설 재배에 한해서는 기본은 할 수 있는 작목이다. 더 기술적인 부분인 딸기의 생리적 특성이나 병해충에 대해 관리만 더 잘된다면 고소득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 논산에서의 정착과정

논산으로 결정한 것은 이미 선택한 딸기 작목에 대한 안정적인 인프라 때문이었다. 정보적인 면에서도 재배의 측면에서도 앞서 있는 편이라 생각했다. 토지는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데만 귀농 준비 기간 2년 중 1년의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10, 20년은 기본이고 대대손손 이곳에서 지낼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각오를 안 하고 당장 1~2년만 농사를 지을 것처럼 아무 땅이나 구해서 농사 짓기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당장 나온 싼 매물에 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땅, 근접성, 교통, 차후 투자 시세의 상승, 그리고 토양 상태 등을 전부 다 따져야 했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매일 출근하면서 살다시피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해서 땅을 선택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연고도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지역으로 바로 내려와서 구하려다 보니 시세보다 무조건 비싸기 일쑤였다. 부동산에는 나름대로의 정찰 가격이 있어서 다양한 지역의 땅을 봐가면서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었다.

### 힘든 점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다. 재배도 역시 어렵다. 함께 딸기 작목으로 귀농했던 사람 중에 3명이 포기하기도 했다. 첫째 농사는 괜찮은 편인 것 같다. 딸기 작목반(총 25명)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아직 귀농 초기라 인사만 열심히 하고 있다. 딸기는 공선에서 같은 브랜드로 내고 있다. 농협에서 수주를 받을 경우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에 주문량을 모아서 농협 브랜드로 포장지에 담아서 갖다 주게 된다.

### 지역 안에서의 관계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 부분은 그저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단계로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 현재 논산 4-H 남부 회장을 맡고 있는데 4-H 가입은 같은 청년층이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2016년 현재 논산에는 약 1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마음에 맞는 지역 청년들 10여 명과도 교류를 하고 있다. 한우에서부터 돼지, 오이, 수박, 복숭아, 배, 사과 등 작목과 체험, 고추장 가공 등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들과는 서로 간에 농사 견학도 가능하지만 모이게 되면 자연스레 파티가 되기도 한다. 교류하는 10명 중 귀농인은 혼자다. 도시에서 온 귀농자들에게는 4-H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논산 농업기술센터의 활발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 지원받은 정책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귀농귀촌 자금을 받은 것이 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전세 자금은 논산에 내려와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었다. 지원받은 정책 자금으로는 농지은행에서 제공하는 2030세대지원을 통해 지금 농사짓는 땅의 절반을 구입하였다<sup>11)</sup>. 이 자금을 이용해서 받은 구매하고 받은 임대 15년을 했다. 임대 기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스스로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 시범사업으로 다중보온커튼 지원을 30% 자부담 사업으로 받기도 했다.

교육 관련해서는 거의 다 이수한 편이다. 온라인 200시간 교육은 귀농 전에 마쳤는데 그 가운데 50시간이 귀농귀촌 교육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 딸기학과를 졸업했다. 또한 4-H에서 운영하는 4-H 대학도 1년 과정을 마쳤다. 강소농 교육은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각 시기별로 해야 할 일, 방제나 해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준다.

사실 귀농 전에 유명하다는 전국의 지역들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이사비, 교육비, 환영비 등 지원 등 각 시군마다 지원정책은 다양했다. 귀농지원센터도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각 지자체 별로 다양한 유인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논산은 독특한 지원이 가장 없는 곳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 측면 때문이었다. 물고기 대신에 고기 낚는 법을 알려준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다. 단발성의 직접적인 현금 지급과 같은 성격의 지원은 평생을 살려고 마음먹고 귀농을 결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처음 논산에서는 마땅한 지역을 찾을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원룸에서 탐색의 기간으로 1년을 지냈는데 탐색하는 동안에 지낼 수 있는 귀농인의 집과 같은 임시 거처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인 것 같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단체 활동도 필요하다. 4-H 활동과 더불어 귀농귀촌 교육을 받았던 5기 생들과는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가고 있다. 귀농귀

11) 사업내용으로는 지원 상한은 기존 소유 및 임차를 포함하여 5ha/호로, 지원 기간은 선정 후 5년간이며, 대상 농지로는 논, 밭, 과수원(축사시설부지 제외)이며 매매의 경우에는 논 및 밭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 두고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농지 매매지원의 단가 상한은 논 및 밭은 35,000원/3.3m<sup>2</sup>, 과원 40,000원/3.3m<sup>2</sup>이며, 농지 임대지원의 경우에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으로 임차한 농지는 관행임대차료 수준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입비축농지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표준(관행) 임대료의 50~100% 범위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농지은행 홈페이지).

촌 5기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는데 그 가운데 딸기학과에는 50명 정도가 있었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논산에 남아있는 사람은 7명 정도인 것 같다.

충남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4-H영농정착지원은 도움이 되었다. 올해는 7천만 원 한도였는데 자부담 50%로 원하는 사업이 가능했다. 물론 다른 사업과 겹쳐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1년에 2~3명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회원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시작된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은 올해 1명으로 4천만 원 100%인 지원 사업이었는데 지원금이 가장 큰 사업이라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서 이런 종류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멘토 멘티 사업에도 선정이 되었는데 일꾼으로만 본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차피 딸기 농사를 지으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했고, 사전에 멘토와의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논산의 경우 귀농귀촌센터가 신설되어 큰 숲을 보는 정책을 잘 진행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농업만큼 지원이 많은 곳은 없을 것 같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금전적 지원보다는 농업의 특성을 살려 교육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지원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 **앞으로 포부**

내년부터는 안정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는 매출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 2년으로 접어들었는데 지난 1년간의 시행착오가 일머리가 된다면 내년은 더 편해질 것도 같다.

이제 귀농, 귀촌, 농업 창업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켄거루족인 도시의 백수 청년층이 도시에서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젊은 층의 귀농귀촌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친구들 10명 가운데 9명은 아직도 신기해하고 한 둘은 흑해한다. 작년에만 논산의 인구 13만 명보다 많은 14만 명이 귀농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시군 단위에서는 귀농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금 더 심플하고 더 쾌적하고 윤택하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할지에 집중하고 결정한 귀농이다. 그러한 삶에 충실하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 5) 귀농인이 아닌 자 E씨(34세)

지역: 홍성군

종사형태: 채소 다품목 소량, 고구마, 감자 등

면적: 임대

시작: 2014년

4-H여부: 가입하지 않음

### 귀농의 계기

서울에서 텃밭을 해오다 본격적으로 귀농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인의 영향으로 흥동으로 오게 되었다. 귀농하여 마을에 들어온 초반에는 협동조합을 추진하였지만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해체를 하였다. 한 순간에 당장 며칠 안에 집도 다시 구해야 하고 수입이 없고 직장을 당장 구할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조금이라도 인건비 지원이 된다면 거주 공간만 확보되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당장 마음이 불안해져서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하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하게 되어 그 이상의 창작활동이라던가 뭔가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힘든 점

귀농 선후배들이 만나는 자리인 청년 귀농귀촌 포럼에서 1세대 귀농인 몇 명과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만큼이나 1세대 귀농인들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들이 우리보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열정만큼은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 소통이 어렵다고 느꼈다.

땅과의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사람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란 부분에서 1세대 귀농인들과는 한번도 소통이라는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대화라기보다는 명령받고 설명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서로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의 지역 주민들 역시 귀농인들에게 지역에서 얼마나 건널 수 있을지, 잘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홍성은 예전부터 귀농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귀농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계심이 더 큰 것 같다.

귀농 선배들이 청년귀농인들이 이렇게 땅과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걱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특히 귀농인들조차도 지역 주민의 경계심과 시선들을 견어내고 마련한 내 땅을 내 후배들에게 그냥 건네준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귀농해서 밭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논은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논은 경우 기계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20만 평을 얻어도 혼자 쉽게 경작할 수 있지만 밭의 경우 2~3천 평만 되어도 혼자 경작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 지역 안에서의 관계

귀농인 간에도 교류는 필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들과 많이 만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같은 문제라도 지역주민인 동네 이장님에게 듣는 것이 선택지가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마을 공동 작업으로 마을의 풀 깎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하면서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 젊은 귀농인이 모이는 갯골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유대감에도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갯골 문화 안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어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더 노력해왔다.

### 앞으로의 포부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다. 디자인, 한옥건축 등을 해보려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발이 되어서도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농사에 뛰어들었다. 농사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낀다. 또한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1차산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사가 왜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매번 바뀌는 것 같다. 언젠가는 농사를 지으며 살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해오던 차라 한 번에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 부담

감은 없었다. 하지만 서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내가 입고 먹고 오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모르는 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짊어 질 수 있는 선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과 농사가 수단이 되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한 일이었다. 앞으로 ‘농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편견을 깨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남아 있고 싶다.

## 6) 귀농인이 아닌 자 F씨(34세)

지역: 홍성군 홍동면

종사형태: 없음

면적: 없음

시작: 2014년

4-H여부: 가입하지 않음

### 귀촌의 계기

새롭게 자립하고 싶다는 생각에 농촌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농촌라고 생각하여 공동체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 농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보이지가 않았다. 보기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매우 힘들어 보였다. 그러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보면 귀촌은 편안한 생활을 연상하고 귀농은 편안한 생활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 농업을 일으켜서 업으로 한다는 개념이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는 고민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자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 귀촌의 과정

처음 귀촌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변산공동체였다. 여기에는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살아가다보니 지친 나머지 들어온 사람도 있으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들어온 사람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까라는 질문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들어왔다. 1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은 생활 자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나가게 되었다. 부안, 서천 등지에서 다시 경제적 여유가 되다 보니 처음 공동체에 들어온 이유가 생각나 흥동으로의 귀촌을 결심하였다.

자립에 앞서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립하는 공동체였다. 마을 안에서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말한다. 농사는 자급할 것만 해결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쪽 노동을 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 조합형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 힘든 점

사회 체계에 대한 의구심으로 귀농을 결정했지만 기존의 도시생활과는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한 위화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흥동에 와서는 조합을 통해 빌린 독채 빈방에서 살다가 1년 후에 게스트 하우스에서 지내게 되었다. 작년 겨울부터는 귀촌으로 마을에 들어오게 된 귀농인의 전셋집에서 지내고 있다.

현재 임대할 땅이 없어서 농사는 짓고 있지 않지만 집 50평과 농지 50평의 총 100평의 토지를 이상적인 농촌생활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다. 농촌을 접한 것이 공동체였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에 비해 귀촌을 결심하면서 처음으로 현지의 지역 농민과 직접 만나게 되면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귀촌 초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주위 귀농귀촌인의 교류로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

### 지역 안에서의 관계

지역 안에서는 마을활동이 아직 많지는 않다. 또래가 아직 없으며 지역 주민과의 연결고리나 공통분모가 없어서 어울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 바탕에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없다는 것도 크게 좌우하는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귀농인들과는 유대감이 있는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귀촌의 기반이라고 하겠다. 진정으로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수양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겨울에 춥기는 하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낼만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다. 홍동은 축사가 많은 곳으로 생각만큼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하지만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 즉 인적 네트워크가 홍동의 큰 매력이다. 현재도 고민 중이지만 앞으로 작은 공동체를 꾸려보고 싶다. 이를 통해 소통되는 삶을 살고 싶다. 최근에는 지역의 영농 후계자와 자주 교류하면서 본격적인 농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고민하고 있다.

###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귀농인에 대한 지원책은 주소지를 옮겨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귀농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실은 스스로 해결 가능한 범위에서만 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지원 같은 것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지원 자체가 위화감으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은 에너지 측면에서 건널 만하지만 겨울은 난방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실업급여 같은 것도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신청하는데 심적인 불편함이 있어서 실제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생활비와 관련한 부분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지원받는 것이 내키지는 않는다.

### 3. 청년농업인 지원 단체 사례

#### 1) 전국 단위 사례: 전국귀농운동본부

#####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는 2009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농활을 시작했다. 단순 재미를 쫓으면 농업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지고 과다한 농업은 농업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농활에서부터 접근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자전거 농활을 시행했다. 상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반나절을 이동하여 4~5농가를 다니면서 농활을 했다. 2011년에는 캠핑 농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에게 숙식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실시하여 마을 회관에서 자면서 적정기술을 지도받기도 했다.

청년층은 세대 간 분포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존재하며 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진로 탐색의 시간이 필요한 20대와 전업농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사에 뜻을 둔 30대 이상에서 요구되어 지는 청년층 프로그램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100일 학교 프로그램은 전국귀농운동본부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농가에 10여 명 내외의 청년들을 10농가에 10일씩 보내 100일만에 걸쳐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을 직접 겪어보게 한다. 하루 이들의 농가 생활은 체험의 감각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실제로 농가에서 밥을 얻어먹어가며 눈치밥도 먹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30~40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농가를 모델로 하여 성향에 맞는 지역과 농가를 선택해 갈 수 있게 된다.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마을 전체 보여주기가 필요하다.

정부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는데 청년층을 선도농가와 매칭한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그 취지는 좋으나 이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층 모델로 규모화 된 전업농 선도농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

## 2) 지역 단위 사례 1: 풀무학교 전공부(교사 G씨, 홍성군 홍동면)

### (1) 풀무학교 전공부 개요

풀무학교 전공부는 2001년에 개교해서 올해 16년째로 접어들었다. 백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거쳐 농촌지역에 들어가 살고 있으며 초기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려 지내는 귀농학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 연령층이 대안학교를 마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초 취지는 고등학교의 연장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만 마치고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개설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곳으로의 진학률이 높지 못하다. 이곳에서 진로를 모색하다가 대학을 가거나 농사를 짓거나 혹은 자기만의 재능을 발견해서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전공부 입학생 숫자는 초반과 지금을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많을 때가 열 넷, 열 다섯 명 정도이고, 적게 들어올 때가 일곱, 여덟 명이다. 풀무학교 졸업생 중 마을에 남는 수는 약 30%이다. 세 명 중 한 명은 지역에 남고 나머지의 경우는 한 명은 다른 농촌 지역으로 가고, 한 명은 도시로 돌아간다. 남는 졸업생 가운데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연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학교가 유일한 연고이다. 그래서 지역에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 매년 남는 비율은 비슷하다.

### (2) 청년농업인에 대한 견해

지역에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야 하는데 농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지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땅 없는 농민 즉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민도 농촌에서의 역할이 존재한다.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온 전업 농민들의 자녀도 이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농촌에서 농업과 농민의 중요성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이나 소명을 찾아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도 육성해 줘야 한다.

후계 자녀들의 경우는 중농 정도의 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와서 사는 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 기반이 워낙 크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온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많다. 그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보다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청년층의 문제

폴무학교 전공부를 찾는 학생들, 그리고 도시의 젊은이들은 농촌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마을로 진입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폴무학교 전공부는 정거장 개념의 교육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농촌에서 살아가려면 필요한 다양한 능력 즉 농사를 짓는 기술이나 농촌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배워야 살아 갈 수 있다. 그러한 정거장 역할을 하는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내려온 젊은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거쳐할 집을 마련하는 일이다. 거쳐만 마련되어도 지역에 노동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품팔이를 하러 다니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귀농인의 집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 바람직한 것은 지역사회가 공유재로서 주택을 확보해서 젊은이들이 머무르는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이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농사지를 토지 문제로, 고령화 된 농민들의 토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업농이나 부농에게 물려가지 않게 파악해서 지역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싼 이자의 자금 융자 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이들에게는 빛이 되고 만다. 주택자금은 농가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3% 이하의 이자로 20년 장기 상환과 같은 것은 나은 편이다. 장기간에 저리로 하는 거면 괜찮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공공 주택을 지어놓고 임대를 해주는 게 젊은이들에게는 덜 부담스럽다고 하겠다.

홍동에도 폴무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을 나와서 졸업 후 투기적인 농업으로 부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청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농은 지역사회에 환경부담을 주기도 해서 결국 대농을 육성하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농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지역 내 관계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후계자들은 정서적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기본적인 호의가 있다. 그렇지 않은 후계자들은 스스로 도시와의 차별을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적고 귀농자에 대한 관심도 없는 편이다.

한편, 지역에 들어온 젊은 귀농귀촌인 역시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것은

서로 알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귀농인들은 후계자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별로 없고, 함께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서 낯선 사람들에게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들, 현안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대신에 개인적인 농사를 짓지, 공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다.

#### **(4) 청년농업인의 육성 정책 방향**

##### **홍성의 지원책**

귀농귀촌 정책은 지자체마다 다양하다. 홍성군의 경우도 처음에는 지원책이 없다가 귀농인들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귀농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지원책이 생겨났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청년들로 따로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으로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청년층의 구분이 필요는 없겠지만 그게 부실하니까 문제라고 하겠다.

##### **빈집 문제**

폐가들을 수리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내어놓는 일은 쉽지 않다. 집을 고쳐놓으면 노인들과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가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집주인을 설득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자녀들이 내려와서 빼앗아버리기도 한다. 귀농자가 힘들게 고친 집이 결국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 **공공재로서의 접근**

공유재로서 지역의 공공재로 남아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월세 부담이 큰 편이다. 개인 사업으로 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의 소유, 공유재로서 거의 무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 **지역 안에서의 관계**

예전에는 고등부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풀무학교 교사가 가서 농업 관련



분야에 대해 강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요즘은 교류가 줄어들어 유기적인 교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다. 풀무농업기술고등학교는 원래 그 자체가 하나의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대학 진학을 하고 절반 정도는 진학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늘었다.

#### 4-H와의 관계

고등부에도 4-H회원이 있다. 교장선생님이 4-H와의 접촉을 통해 농업에 친근감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경우에 농업은 더 친숙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풀무학교 고등부는 인문계 대안학교라는 성격으로 규정되어 농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적다. 동아리로 농업 분야에 접촉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청년농업인 육성이 도시에서 오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의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업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업과 접촉하게 되고 이러한 체험이 진로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농업기술원의 역할

농업기술원 및 센터에서 농업관이나 농업에 대한 인식 등 농업 전반에 걸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의 교육 환경으로는 기존의 농민들에게 기술 지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신규 농민들, 즉 후계자들이나 귀농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 소농 육성의 방향

극소수의 농민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은 농업에도 국제 경쟁력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다. 적정 수준의 농업 인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농업인만이 아니라 비농업인도 살려면, 농촌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만약 전업농 위주의 농촌이라고 하면 그건 농촌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비농업인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농촌에는 식당도 미장원도 슈퍼마켓도 필요하다.

때문에 농민의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을 농민으로 포괄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에서 지역 공동체가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려면 다양한 성격의 농민들이 존재해야 한다. 전업농은 아주 극소수여야 되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소농들의 역할이 인정받아야 한다.

### 지역의 역할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 정거장이 필요하다. 장곡의 협업농장과 같이 외부 사람을 만나서 자체 교육도 이루어지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결국 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면 된다.

이를 위해 물리적으로 물적 토대가 필요한데 공유 공간,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급선무다. 공적자금을 모아서 마을활력소 주관으로 공유재로서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리는 그 주체에 맡기면 된다. 협업농장이면 협업농장 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고, 마을활력소의 경우는 정부나 활력소에서 관리하면서 청년층 스스로가 지역에서 자신의 일을 찾게 한다. 그동안의 생활비용은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배당 지불을 통해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지역 단위 사례 2: 젊은 협업농장(이사 H씨, 홍성군 장곡면)

#### (1) 협업농장 개요

##### 젊은 협업농장 운영

젊은 협업농장은 귀농을 꿈꾸지만 토지가 없고 아직은 기술도 없어서 농사지를 자신이 없는 예비귀농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동으로 농사짓는 교육 농장이다(이하 협업농장). 현재 협업농장에는 8명의 교육생이 있다. 협업농장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교육생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어린 교육생이 들어온다고 해도 오히려 케어가 더 많이 필요한 교육생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 멤버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거부하지 않고 모든 인원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협업농장을 운영한 결과 교육생은 첫인상이 길게 가는 각인효과가 강하다고 판단된다. 처음에 협업농장이 소재하고 있는 장곡(면)에 왔는지, 홍동(면)에 왔는지에 따라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 협업농장의 기준은 처음 농촌을 접하는 사람이 최대한 기존 농민과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게 되면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가깝게 농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업농장주의 역할이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문화 차이를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만 농촌에서는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문화를 이해시켜주는 등 농촌만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방향

##### 농업 후계자 육성 정책

농업 후계자 육성 정책과 청년의 귀농 정책은 젊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로 묶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 농업 후계자는 대부분 부모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해왔던, 보고 자랐던 친구들이다. 농사짓는 일에 중간에 끼어든 친구들을 이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농사 규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 귀농인들의 경우 그나마 능숙한 농업후계자들과 똑같이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농업에 전념하게 한다면 농촌에서의 정착률이 매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청년 귀농인들은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인에게는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전체 농업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그룹과 반대로 전체 농업 인구의 약 10%로 연 소득 3천만 원 이상인 그룹,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들의 중간에 속하는 그룹이다. 농업 후계자의 경우는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전업농 육성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산업 의미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 청년 귀농 정책

이에 비해 전체 농업 인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그룹에 속하는 청년 귀농인들은 전업농과는 차별화 되어야 하며 전략적으로 농업의 다기능성을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농산업 측면의 농업과 농업의 다기능성을 이용한 측면 두 가지를 굳이 나누자면 다기능성 그룹을 청년들에게 맡기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간의 경험, 인프라, 인맥 등에 뒤쳐져 농산업을 하는 그룹보다는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농장, 치유농장 등 다양한 농업과 결합할 수 있는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가공 등이 들어간 6차 산업은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 청년 귀농 정책은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년 귀농의 목표 지점은 결국 앞에서 분류한 고소득 농업 후계자 그룹과 청년 귀농인 그룹의 중간 단계, 즉 농업의 다기능성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 젊은 귀농자의 정착 방안

청년 귀농인의 경우도 세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30대의 경우 현실적,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간절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을 빠르게 배우고자 함과 동시에 빠른 독립을 원하고 있다. 때문에 농민의 네트워크를 통해 농장별로 1주일씩 약 8주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그 이후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하여 6개월간 한 농장에서 농업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농진청에서 도제식 교육이 가능한 농장을 지정하는 현장

실습교육(WPL: Work Place Learning) 제도를 이용해 농장에 교육비를 주어야 한다.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교육생들을 위한 농장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충남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귀농 교육기관으로 네트워크를 인정해주고, 교육을 원하는 교육생이 있으면 농가한테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교육생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면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식을 거치게 된다면 청년층의 정착률은 90%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비해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기술교육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시켜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일과 학습의 병행 체계를 만들어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게 하여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강좌를 통해 청년 귀농 교육자들은 물론 기존 주민들 또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사회적경제 자금을 이용하여 대도시와 MOU 협약을 통해 대도시의 청년 취업 문제를 충남이 해결해 주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생활비는 충남의 농업현장에서 지원하고 교육센터, 교육비 등은 대도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3) 청년의 귀농 교육**

#### **현장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교육**

대도시에서 교육받는 것은 현장 감각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의 교육을 통해 생존이 가능한 그룹은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생존력이 아주 강한 40대 이상의 교육생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년의 귀농 교육은 기존의 귀농 교육과는 달리 철저한 현장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농촌의 공동생활, 농촌에 뿌리 내리기, 농촌 역사 공부하기 등 직접 농촌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장 감각이 배제되어 농업 기술만 가르치는 귀농 교육은 오히려 기존의 농촌을 심각하게 파

괴할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년 귀농의 위험성이 농촌과 청년 모두에게 높아질 수 있다. 이에 귀농 교육을 여러 단계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 귀농학교의 운영

귀농학교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하나는 매니지먼트를 양성하는 학교이고, 둘째는 매니지먼트가 지역으로 나가서 운영하는 농장 혹은 센터가 필요하다. 기존의 한국농수산대학이 매니지먼트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역량적인 문제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매니저를 양성하는 매니지먼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가족농의 감소현상과 연관이 있다. 기존의 농업은 대부분 가족의 노동력으로 운영했지만 갈수록 가족농의 형태가 줄어들고 있다. 가족협동조합, 농장법인 형태로 가족 구성원인 남편과 부인이 농장에서 같이 일하지만 부인은 회계, 남편은 생산관리 등의 분업 형태로 농장을 매니징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혹은 실제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공적인 가족을 만드는 형태도 가능하다. 이렇듯 농사를 짓는 것 이외에 농업 경영에 대한 매니징을 교육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결국 협동조합의 형태인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법인형태에 많은 투자를 시행하고 있고 개인에 대한 투자는 없는 상황이기에 향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청년 귀농에는 성공 사례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패 사례를 통해 귀농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귀농에 대한 불안감, 단점 등을 먼저 파악하게 한 후 제대로 된 교육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교육하는 사람 또한 피교육자의 불안한 점, 궁금한 점을 실패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런 요소들을 중점으로 현장 사례를 매칭할 수 있다.

### (4) 지역 안에서의 관계

농촌에서 청년을 육성하려는 이유는 농촌을 되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전통을 유지한 상태로 농촌 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입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농촌 생활 속에서 다소 불편한 점은 업그레이드 하거나 고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기존

의 지역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존의 농촌 사람들의 자존감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할 것이다.

##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지원 단체의 심층 인터뷰 조사를 통해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청년농업인의 경우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모두 농업의 계기로는 농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점과 관련해서는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들은 후계농업인과는 다르게 토지 문제나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고가 없어 정보의 취약성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는 후계농업인에게도 멘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귀농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귀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귀농 혹은 귀촌을 탐색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지원책의 부재에 대해 불만을 언급하면서도 지원 자체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는 편으로 새로운 인생을 농촌에서 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확실히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그리고 농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짓고 있지 않은 귀농인이 아닌 자 사이에는 농업관과 농업의 규모, 그에 따른 장래의 농업에 대한 기대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지향하는 농업에 대한 지원 정책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중간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 풀무학교 전공부와 젊은 협업농장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에 내려온 젊은 청년층의 각각의 다름을 인정한 가운데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의 목표에 따라 다른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하여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육성 지원 정책의 큰 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농업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농촌은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거기에 기존의 농민들조차도 이제는 고령화로 농사짓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 농가 수는 132,011호로 이는 2005년 대비 약 16% 가량 감소하였다. 농가 인구 역시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데, 2015년 기준 농가인구는 308,467명으로 2005년 대비 약 28% 가량 감소하고 있다.

농가 인구 감소에 따른 39세 이하 농가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2015년도 충청남도의 39세 이하 농가 인구는 57,041명으로 2010년도보다 약 41.0% 감소하였으며, 2005년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약 53.4% 감소하였다. 평균 증감률 또한 -31.0%로 매우 높은 수치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대비 농가 수의 증감률은 충남 전체(-15.8) 비율에 비해 만 39세 이하(-68.8)가 약 4.4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유출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더욱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귀농귀촌의 증가로 조금이라도 젊은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와 준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것이 농촌 지역의 현실이다. 실제로 청양군과 금산군의 경우는 늘어나는 자연사망률과 줄어드는 자연출생률로 총 인구 수가 줄어야 정상이지만, 몇 년째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도시에서 들어온 귀농귀촌인의 수 때문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 인원만 보충되어도 반가운 일이고, 그들이 조금 더 청년층이어서 농촌



지역 공동체를 지지하고 더 나아가 이끌어주기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농촌에 들어오는 청년층에게 기대를 가질 만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청년층 가운데 농사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농민 자녀들이 후계자로 농사를 이어간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사 초자인, 그리고 어디까지 신뢰가 가능할지 모르는 귀농인 청년에게 지금까지 땀 흘리며 지켜온 나의 땅을 넘기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힘들게 농사지어온 내 모습을 그나마 지켜봐온 내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는 것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심정적으로 더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후계농업인 청년층에게 거는 기대이다.

하지만 기존의 후계농업인 지원 정책은 대체로 융자사업이 많아 빚으로 바로 연결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는 귀농인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이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지원 정책은 시작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다. 한편 귀농인 혹은 귀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정책은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참신한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6월 현재까지도 보류인 상태로, 자칫 농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뛰어들 청년층에게 시작부터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불신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이다.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지원 방향의 큰 틀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이들 청년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열악한 분야라고 하는 농업에 자신의 미래를 건 청년들이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기대해서 농업을 선택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 위주의 지원이 아닌 큰 그림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 2. 정책제언

### 1) 청년농업인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1) 청년농업인이 당면하는 정서적 문제

##### ① 후계농업인: 농업에 대한 편견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후계농업인의 경우, 우선은 아버지의 반대, 즉 ‘나처럼 힘들게 농사짓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선입견 즉, ‘누구네 아들은 대학도 나왔는데 도시에서 실패한 모양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그 가운데는 실제로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귀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한마디로 시간이 해결해줄 수밖에 없다. 농업에 임하는 자세나 농업의 결과물로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방법이 최선이다.

##### ② 귀농귀촌인: 텃세와 외로움

이에 반해 귀촌인을 포함하는 귀농인의 경우에는 정서적인 문제라고 하면 연고지가 없어서 느끼는 텃세와 관련한 부분이다. 직접적으로는 ‘좋은 땅과 주거지’에 대한 정보의 취약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결국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귀농이 많아지는 만큼 역귀농의 수도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네 이장님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한 연대 구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청년농업인이 당면하는 물리적 문제

### ① 토지문제

#### 후계농업인, 귀농인: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싶은 토지 문제

물리적으로는 후계농업인도 귀농인의 경우도 농사지를 토지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농지를 사거나 빌리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농사짓는 사정에 따라 지역 내에서조차 농사지를 토지를 임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후계농업인도 귀농인에게도 농사를 짓고자 하는 누구라도 지역에서 내놓은 토지를 매매하고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 귀농인: 탐색을 위한 토지 문제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농사가 정말 적성에 맞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몇 개월만이라도 실제로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이 필요하다. 젊은 협업농장과 같은 교육농장의 개설이 각 군별로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읍면 단위까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귀농인에게는 교육생으로서의 역할을, 농장에 있는 숙련된 지역 농민들이 교사가 되어 그들에게는 강사의 자격으로 역할을 부여한다면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정보 제공, 기술 이전 등 실질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농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② 주거 문제

#### 귀농귀촌인: 주거 문제

다음으로 주거할 공간과 관련해서는 귀농귀촌인에게만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반론은 없으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이미 지자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으로는 커버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우선, 굳이 귀농하는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마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근처 읍내 생활권에서 지자체나 지역의 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제대로 된 농촌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농촌을 이해하지 못하고 걸돌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직접 부딪혀 가며 조금씩 농촌 생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체류형 멘토 멘티제

이와 관련해서는 잔혹하게 홀로 버티기를 권하기보다는 멘토 멘티제를 활용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농업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멘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 생활 면에도 도움이 될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sup>12)</sup>. 일정 기간에 한해 기왕에 농업기술을 전수받아 매일 함께 생활하는 멘토에게서 농촌 생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큰 위화감이 없이 적응하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월급제적인 멘토 멘티 제도에서 나아가 체류형 멘토 멘티제의 활용을 제안해 본다.

###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지원책과의 연계

이러한 기반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빈집 수리와 점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빈집수리비 지원은 기존의 농가가 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었으나, 새로운 멘티인 청년을 체류형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멘토는 그에 대한 준비로 신식 세면대나 화장실의 설치와 낡은 방 수리 등을 할 수 있다면 손님 받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③ 일자리 문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농업인의 일시적 혹은 작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제공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직이나 평생학습, 재활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 6차 산업화 조직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한 곳에 모으는 과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에는 조직 자체에 다채로운 인력풀이 필요하며, 각 조직이 관여하는 다양한 사안

12) 일본의 교토에서는 농촌 생활 측면을 지원하는 후견인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에 대해 청년농업인들이 가진 재능의 즉각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2)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필요 정책

이상의 연구에서 살펴본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과 실태 및 사례 조사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충남의 청년농업인이 겪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반영한 필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의 청년농업인 지원은 크게 ‘농업’과 ‘농업 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실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 종사형태가 축산과 논벼, 채소의 순으로 규모화 된 농업을 지향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창업을 위한 규모화 된 농업기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금과 시설 마련은 물론, 경영적인 측면의 교육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귀농인의 경우에는 채소와 특용작물 등 소규모 특화된 농업 기반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농지임대지원은 앞 절에서 언급한 대로 유형에 따라 방법론이 달라지지만 전 대상자가 해당된다. 청년농업인의 구분에는 들어갔으나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는 못했던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인으로서의 의지가 있다면 농지임대 등이 이루어져 농업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과 관련된 교육 부분에서는 후계농업인의 경우도 학습회를 중심으로 하는 멘토제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농업 외적인 면에서 공동체 유지를 위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인과 귀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교육생과 생활비지원이 바탕이 된 교육농장 프로그램의 활용을 기대해 본다. 그 외에 교육에서 창업으로 진입하기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취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마을만들기나 사회적경제 등 관련 중간지원조직에 의한 융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 외’의 소득과 관련한 부분은 따로 농업 외 소득이 필요 없는 후계농업인 이외에는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적 지원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이나 체류형 멘토멘티제를 제안해본다. 또한 지금까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동체 유지와 관련한 부분 역시 중간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며 청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학습회 중심의 멘토제를 제안하였다.

〈표 32〉 충남의 청년농업인 유형별 정책 제안

구분	성격	후계농업인	후계농업인이 아닌 자	귀농인	귀농인이 아닌 자
농업	창업	-영농 4-H회원 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b>*축산, 논벼 등 규모화 된 농업기 반 지원</b> <b>*농지임대 지원</b>	<b>*농업인으로서의 의지 가 있으면 농지임대 등 농업기반 지원</b>	-청년농산업창업지원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설명회 (귀농창업보육센터) -귀농 창업자금 지원 <b>*채소, 특용 등 소규모 특화된 농업 기반 지원</b> <b>*농지임대 지원</b>	-귀농귀촌정착지원 (귀농귀촌설명회) (귀농창업보육센터) -(대학생)농대 영농 창업특성화사업 <b>*농지임대 지원</b>
	취업		<b>*일자리 제공을 위한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적 지원</b>		
	교육	-청년농업인 경 쟁력 제고사업 <b>*규모화된 농업을 위한 영농교육</b> <b>*학습회 중심의 멘토제</b>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멘토 멘티제) -귀농귀촌 교육 <b>*소규모 특화된 농업 을 위한 영농교육</b> <b>*교육농장 프로그램</b>	-도시청년 ‘초보농부 비밀언덕’ 네트워크 조성 운영(2017~) -도시청년 농업농촌 캠프 운영 -귀농귀촌 교육 -(고교생)특성화농고 인력육성 프로그램 <b>*교육농장 프로그램</b>
농업 외	소득		<b>*일시적 소득을 위 한 관련 중간지원조 직의 융복합적 지원</b>	-농가숙박형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운영 (2017~) <b>*일시적 소득을 위한 관련 중간지원조직 의 융복합적 지원</b>	
	주거			-귀농귀촌정착지원(귀농인의 집) -귀농 주택자금 지원 <b>*공공임대주택</b> <b>*체류형 멘토멘티제(빈집정비지원금 활용)</b>	
	공동체 유지	<b>*지역 내 물적 인적 자원활용을 위한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적 지원</b> <b>*학습회 중심의 멘토제</b>			
통합 지원		-농업기술센터 <b>*관련 중간지 원조직의 융복 합적 지원</b>	<b>*통합지원을 위한 관련 중간지원조직 의 융복합적 지원</b>	-귀농귀촌설명회(7개소) -귀농창업지원센터(가칭) 설치(2017~) -귀농지원센터(16개소) -귀농귀촌정착지원(도시민농촌유치프로그램) <b>*통합지원을 위한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적 지원</b>	

주: 1. 관련 중간지원조직에는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재활, 사회적경제, 6차산업화 등의 분야가 포함됨

2. \*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안 정책임

마지막으로 통합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후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담당해왔는데, 행정적인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행정의 업무는 줄이고 지원 효율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라도 청년농업인 육성 문제는 해당 사업별 개념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융복합적 사고와 인식으로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3) 청년농업인의 육성 지원 정책 방향

#### (1)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역할 인식

청년농업인에는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접근하지 못한 예비 귀농인, 귀촌인 등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지역 내에서의 역할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풀무학교 전공부 교사의 조언처럼 농촌에도 대농에서부터 소농까지,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청년도 필요하고 그 곳에서 함께 일하는 청년도 필요하다. 협업농장 이사의 조언처럼 농촌에는 농업으로 큰 소득을 얻는 전업농 농업인도 있어야 하고, 소일거리를 해가면서 농업도 유지하는 겸업농도 있어야 한다. 산업적인 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성공한 후계농업인도 있어야 하고 한편, 비산업적 측면의 가치적 농업 생산을 꿈꾸는 소농 역시도 그의 목표에 부합한다면 농촌에서 성공한 귀농인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후계농업인 가운데도 기성 세대의 농법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도 있고, 귀농인 가운데도 고부가가치의 시설 딸기나 인삼 재배에 최첨단의 방식을 도입하여 성공을 꿈꾸는 이도 있다. 이들의 다양한 역할 구분을 인식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농업인으로서의 여건 마련에 힘써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청년농업인의 통합 기반 체계

청년농업인은 이렇듯 농업의 전승 뿐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유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차원에서의 접근이 바탕이 되어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인지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의 경우는 4-H라는 단체에서 영농에 관련된 모든 청년층을 묶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고정된 인식 때문인지 홍보의 부족인지 영농에 관련된 젊은 귀농인들까지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4-H에 소속된 대부분은 후계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업 관련 학교 졸업자이거나 한국농수산대학 출신인 이들은 농업 교육 과정에서 관행 농업 위주의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되어, 농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유기농업과 같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젊은 귀농인과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sup>13)</sup>.

그러면 이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일은 힘든 일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오프라인 양쪽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업기술원 이어도 좋고 농업정책과여도 좋다. 누군가가 주체가 되어 온라인상에서 농업에 대한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나, 농사짓다 우를 범할 수 있는 사례 혹은 반대로 우수한 농사법 사례 등에 관련된 농업 관련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여기에 농업 자체와 상관이 없는 농촌 생활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문제나 해결책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청년농업인을 연결해주는 고리를 찾는 방법인데, 면담한 청년농업인들은 대체로 바쁜 농사일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친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은 사치일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에 도움이 되는 ‘멘토’ 중심의 다양한 분야의 학습회의 개최는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변모될 수 있다면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융복합적 지원

사실 앞에서 언급한 만남의 장의 주선을,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민간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이

---

13) 정농회(1976년 설립)라고 하는 유기농업단체에 소속된 유기농업 실천 농가의 자녀들 가운데도 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오면 관행농업에 대한 교육이 추가 되어 농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전문가 인터뷰).



해준다면 청년농업인 관련 해당 부서의 일을 덜 수 있다. 이에 더해 청년농업인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지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농업 인프라의 측면,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와 인맥 관계 등과 관련한 사회적 자본의 문제, 단계적 농업 정착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의 측면 등 농업기술원과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도와 각 시군에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상근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예비 귀농귀촌인의 전화 및 방문 상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일정 기간의 소득원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나 지역 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복지와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청년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마을만들기 지원 조직이나 평생학습, 재활센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직, 6차 산업화 조직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귀농귀촌센터와 청년농업인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함께 구성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즉각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접근 방식이 세부적인 사업적 개념이 아닌 거버넌스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융복합적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강호·마상진(2009). 농업인력육성사업의 경제적 수익 효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4권 제4호. pp. 41-58
- 김진호(2013). 4-H청소년 서울현장체험학습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청소년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0(3). pp. 729-753
- 이은영(2014). 농촌활력소와 잠재농업인 육성: 학교4H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임형백(2008). 한국 농업인력육성의 방향 전환. 농촌사회 제18집 1호. pp. 207-240
- 오해섭·김정주(2002). 농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농촌청소년교육 및 지원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pp. 185-197
- 전익수·김병률(2011). 농업인력 실태와 농업인력 정책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8권 제3호. pp. 689-708
- 진종순(2010). 여성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4호. pp. 87-106
- 최영창·박은식·고정숙·조영숙(2007). 청년농업인 육성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의식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2호. pp. 351-371
- 농촌유입을 위한 농산업 창업지원 계획(안)(2015). 충청남도 농업도시청년 기술원 역량개발과 충남형 청년정책 구상(2015).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2016년 충청남도 귀농인 육성·지원 계획(2015).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 충청남도 청년 인식조사(2015).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기홍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6-42 ·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

글쓴이 · 김기홍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05(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386-5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